

천지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상황에서도 일상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저물어가는 2021년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도 갖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와는 크신 하나님이니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11월 20일 (토) 제 1851호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발행인 칼럼 : 감사절 특집

## 회복의 감사, 감사의 회복



김성국 목사  
(센트럴교회 담임)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앞으로 내민 모세의 조각상을 선물로 받았다. 그 조각상이 책상위에 있다. 위풍당당한 모세의 모습이다. 원래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모세의 아픔이요 상처의 지팡이였다. 그 손에는 지팡이가 아닌 왕의 홀을 들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어찌 장인의 양을 치는 초라한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말인가. 누군들 이해했을까, 모세의 수치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끄러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고 다시 집으라고 하셨다. 그러더니 그 지팡이는 더 이상 고초의 지팡이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넉넉히 이끈 능력의 지팡이, 손에 들고 내미니 바다가 갈라지는 영광의 지팡이가 되었다. 모세의 상처는 회복되었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은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웃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시를 전해 들었다. 목사님 교회에 남편과 어린 아이들을 두고 하늘나라로 떠난 집사님이 남긴 시라고 하셨다. "쉬지 않고 달려야만 먼저 도착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광야 길에서 만난 주님은 제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곳엔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안정적인 삶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빈손으로 여행하는 나그네 삶이란다/ 노력하면 소망하는 꿈들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향한 나의 축복이었다/ 주님은 제 몸이 가시를 주셔서 땀을 알게 하셨습니다/ 안정적이고 싶었던 삶이 되었습니다/ 간절했던 바람도 소망도 주님께 먼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겸손함으로 낮아짐을 배웠습니다/ 남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길에서 만난 주님은 누구보다 사랑하게 되었

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가시가 박힌 후에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집사님은 육신이 광야에서 회복되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저 좋은 천국에서 더 이상 아픔이 없는 완전한 회복을 누리고 계심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1988년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역사적 모임이 시작되고 윗튼 칼리지 빌리 그레이엄 센터에서 역사적인 일이 있었다. 제 1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있었던 것이다. 수천 명의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수천 명이 함께 모여서 한국 디아스포라 선교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것이다. 매 4년마다 개최되었던 선교대회가 작년에 모여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팬데믹 때문이었다. 이 선교대회를 이끌어온 KWMC(기독교한인세계협의회) 연차 총회가 지난 주 볼티모어 벨렐교회에서 있었다. 2년이 늦어졌지만 내년 7월에 다시 한인세계선교대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격변하는 세상, 변치 않는 복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를 삼은 제 9차 세

계선교대회 회복을 선언한 것이다. 특이한 점은 내실을 더욱 기하고, 대회 중에도 대회 후에도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연계성을 갖도록 하며 젊은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세우는 일에 이전에 없던 관심을 갖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더 멋지게 회복하신다. 상처가 회복된 모세만 아니다. 더 좋은 회복을 누리시는 집사님만이 아니다. 새로움을 더한 한인세계선교대회뿐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허물어진 예배도 더 뜨겁게 회복하시고, 깨어진 가정도 더 아름답게 회복하시고, 끊어진 관계도 더 끈끈하게 회복하시고, 망가진 모든 것들을 더 든든하게 회복하신다.

이제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드릴 감사이다. 열 명의 나병환자이야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다. 회복된 아홉 명만이 아니다. 회복시켜달라는 우리의 소리도 크다. 회복시켜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소리는 없거나 작다. 추수 감사절이다. 다시 살펴보자. 감사의 불꽃이 망가지지 않았는지. 고장 난 감사를 회복하자. 회복을 감사하자. 감사를 회복하자.

### 감사시

## 플리머스 대 감사제



조의호 목사  
(시인, 뉴욕목사회 중경회장)

지구촌 들녘마다  
우로를 값없이 내리우사  
햇살도 나누시니

변형19 환란 중에도  
옥토가 큰 눈을 뜨고  
동화작용도 선용해  
30, 60, 100배 향기 뿜으니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복된 추수기를 선물하심이라

플리머스 1620 첫 돌단처럼  
다시 쌓아  
벤엘 야곱의 좁은 길 따르며  
2021, 대 추수감사 돌판 앞에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 따라  
산 제사, 산 제사 드리게 하소서.



시론  
류용렬 목사



3면  
감사절 설교  
조문휘 목사



9면  
인터뷰  
심상은 목사

###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교서적/일번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 액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교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201)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gbook.com / cbc@jg.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 2021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사를 말하는 사람은 고사가 넘치는 삶을 얻습니다  
고사를 느끼는 사람은 감동을 주는 축복을 누립니다.  
고사를 나누는 사람은 감격의 기쁜 순간을 만납니다.  
고사로 충만한 사람은 은혜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 주일예배: 오전 11:00 ● 수요 면류관 성경대학: 오전 10:30
- 새벽기도회: 월-토 5:30 ● EM예배: 주일 오전 11:00, 금 저녁 8:00



**시론**



**마르지 않는 감사의 노래**



**류응열 목사**  
(와싱턴중앙로교회)

독일의 신비주의 신학자 아이스터 에크하르트가 감사에 대해 남긴 말입니다. “평생 동안 기도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뿐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나오는 자연스런 발견입니다. 앞을 볼 수 없던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말이든 삶이든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감사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경이로움이 있기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감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삶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신앙적인 감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에서 발단되기도 합니다. 더 깊은 감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자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가 되시며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 새겨지면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얼굴은 늘 밝습니다. 감사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의 입가에는 미소가 스며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여유롭고 태도는 파스합니다. 감사는 바람속의 향기처럼 전염됩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도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다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감사의 삶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기독교신앙을 지키고자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로부터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 미국에 건너가기로 결단한 청교도들 102명은 1620년 9월에 180톤의 작은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잉글랜드 남서부 플리머스항을 출항하여 그해 11

월에 보스턴 근처 케이프코드 연안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띄워 놓은 채 정착지를 모색한 후 12월 대사추세즈주 연안에 닿을 내리고 그곳을 떠난 영국 항구의 이름을 따서 뉴플리머스라고 지었습니다. 뉴플리머스 미지의 땅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굶주림과 추위였고 인디언의 습격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추위와 기아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 믿었던 청교도들은 미국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열망했습니다. 생존자체가 힘겨운 청교도들을 위해 농작법과 사냥을 가르쳐준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가을이 되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로 드렸고 그 날이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죽음을 무릎 쓰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신대륙으로 건너와 수많은 생명을 잃은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감사가 스며있었던 예배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관습은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국경일로 지정했고 제퍼슨 대통령 때 폐지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중인 1863년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국경일로 다시 선포했고 1941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정한 것이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시작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또는 조막절은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며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신 절기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출23:16). 이런 성경적 배경을 가진 추수감사절을 유럽에서 오래 전부터 지켜오다가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계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대상이 누군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풍성한 추수를 두고 조상에게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내용은 단지 추수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preachchrist@kcpc.org

**먼저 감사하고 전통이 되면 결과는 감사의 상황이 된다!**

**‘2021 추수감사주일 워드 코로나 시대, 감사의 진정한 의미와 재발견**

11월에 들어오면서 코로나 시대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이제 워드(with) 코로나 시대로 일상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마치 지난 2년여 년간 것처럼 힘들게 만들었던 코로나 위기상황이 끝나는 것 같은 분위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지난해 관람객 없이 사전 녹화방송으로 진행됐던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올하는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해 대폭 축소됐던 거대한 풍선과 마칭 밴드, 뮤지컬 공연 등도 예년 수준으로 재개된다. 단 올해는 보다 안전한 행사를 위해 보건규정이 시행된다.

미국내 주요 도시 주요 쇼핑몰에서도 대형 성탄장식과 함께 연말 대목을 기대하는 대규모 세일을 알리는 판촉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맞게 되는 추수감사절은 짧게는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코로나 팬더믹을 돌아보면서, 길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뒤편 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봐야 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사50:14-15).

아무리 봐도 감사할 거리보다는 불평을 할 조건이 더 많았던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 땅에 도착해 추위와 질병이라는 악조건들을 직면한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감사는 감사할 상황을 만들어 온다.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물류대란, 소비재 가격 급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621년 신대륙에 살아남은 청교도들의 상황도 매우 암담했지만 그들은 먼저 감사할 줄 알았다. 그리고 그 감사가 전통이 됐고 그 감사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감사는 자기 보호기능 중 하나... 동시에 적극적인 회복 탄력성**

의 결과가 진짜 감사의 상황으로 바뀌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멀고 험난한 모험을 했지만 청교도들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신대륙의 혹독한 추위에 맞닥뜨리게 된다. 강풍과 눈보라, 추위, 질병과 식량부족, 원주민들의 적대 등을 경험하며 그 추운 겨울, 청교도들은 추위를 막아줄 집조차 없이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 그해 겨울 동안 102명의 청교도 중 약 절반 이상이 죽었으며 나머지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지고 질병으로 고생을 했다. 봄이 찾아왔을 때 살아남은 청교도들은 땅을 개

간하고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 그해 가을 처음으로 수확을 하게 된다.

1621년 청교도들은 신대륙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게 된다. 첫 곡식과 채소 중 최고로 좋은 것만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허락하신 곡식으로 만든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나누며, 원주민들과도 함께 음식을 나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웃과 그 감사를 나누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전통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뿌리다.

신앙 안에서 감사는 두 가지로

나뉘질 수 있는데, 하나는 내게 행하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내게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이 둘은 시간의 관점에서 과거에 나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앞으로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mother)’이고, 가장 아름다운 말은 ‘감사합니다’라고 한다.

(12면으로 계속)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 과목 -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지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광원터 비드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진료. 안. 내 - 치아외식(임플란트), 구강외과 틀니, 보철치과, 미용성형치과,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 문화사역’**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고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순삭성경 Hisfinger Media

좋은책 읽어주는 그레이스타임

쉽고 재미있는 어린이들의 성경이야기 **순삭성경**

“신린”가 중요한 4:30, 싸움에서 이기려면 00 해야 한다?! 4:18,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남자아 4:27, No thank you, 티라오나 4:53, 우리 식당 해나려 일을 할아 주게 4:43, “말씀의 열매” 그리스도 “성령의 열매”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사역부 히스핑거는 기독교 콘텐츠제작, 기독교 굿즈제작 등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매문의, 광고문의, 사역문의는 info@chpress.net 혹은 718-886-4400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Pandemic)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절기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감사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노력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운이 좋은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다. 그런데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할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다. 짜증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감사할 것들을 찾지 못한 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고, 감사를 통해 부정적인 마음을 몰아낼 수 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 허박국 선지자는 절망 중에서도 감사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Bobby McFerrin이라는 가수가 부른 "Don't Worry, Be Happy"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다. 걱정을 버리고 행복하라는 말이다. 하지만 걱정을 버린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 말을 "Thanks God, Be happy" 라고 할 수 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누군가를 보면서 믿음이 좋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안다.

누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에는 그 사람의 감사생활이다. 본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쓴 바울의 편지가운데서 감사하라고 강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자.

첫째,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한다. 사도 바울은 골 3장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받기 위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다.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즉 감사가 평강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 어느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고,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가를 진단하는 방법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평강이다. 민수기 6:26절에서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가르치는데,

평강을 소유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글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정성이 담긴 선물이나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으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데에도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봉사와 기도로, 물질로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정성스럽게 물질들을 준비하여 드리는 모습이 감사

시편을 의미하고, 찬송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작곡되고 불리는 찬송을 의미하고,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노래를 말한다. 이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의 열매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다. 이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찬양은 세상의 노래와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적절한 응답으로서의 감사가 담긴 찬양을 해야 한다.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물질로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16절 말씀에서는 또 다른 감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열심히 찬양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큰 힘이 되고 감동이 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지만 찬송하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 찬양을 듣는 사람과 찬양을 하는 사람이 누가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찬양은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있다.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하며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눈물의 회개를 통해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때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 문을 열어주셨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찬송하며 찬송 가운데 거하시

야 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신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사랑하게 되면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한다. 그것이 감사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며칠 후면 12월이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어떤 감사의 제목이 생겼나? 그것을 찾아서 감사의 제목을 작성해 보자.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생각해 보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12월을 맞이하시기 바란다. 특별히 지나온 한 해는 온 세계가 Pandemic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나왔다. 우리 각 가정과 직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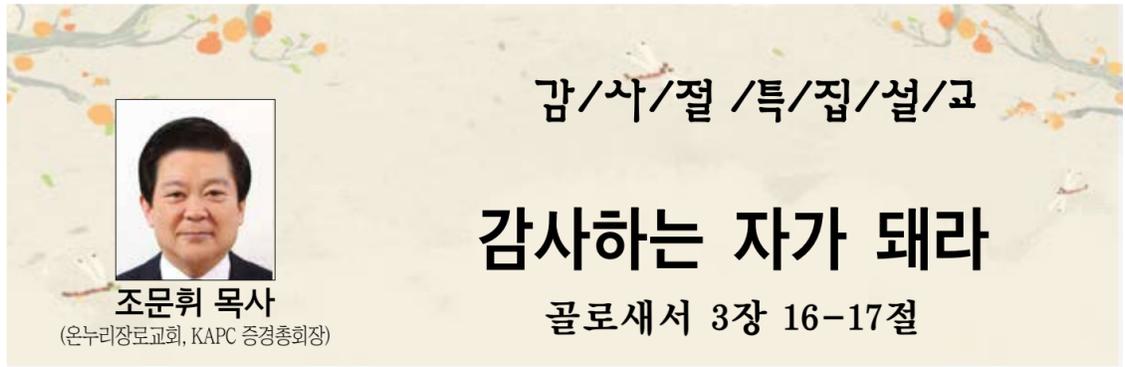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감사이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나타난 잘못된 현상이 하나님께 돌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거나, 혹은 우상들에게 돌리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는 일이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인간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바로 감사의 생활이다. 20세기의 난치병인 암도 마음을 즐겁게 갖는 사람에게는 거의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의학계의 발표를 들은 적이 있다. 감사 Therapy로 병을 치료하기도 하는 세상이 아닌가? 우리가 사는 이 어둔 세상을 감사할 만한 대상으로 만들어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moonhcho@hotmail.com



조문희 목사

(은누리장로교회, KAPC 증경총회장)

# 감사하는 자가 돼라

## 골로새서 3장 16-17절

거기에 "여호와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는 마음을 빌어 주라고 가르치고 있다. 시편 29: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의 모인 곳에는 미움과 시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찾아보기 어렵고 요구사항이나 불평만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갖고 있는 근심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감사 밖에 없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다. 가정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돈을 벌면서부터 매주 감사헌금을 하는 훈련을 하자. 성인이 되면 주일예배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물질로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항상 감사헌금을 한다.

그런데 감사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한다. 정성을 다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둘째,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1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아름다운 멜로디와 청아한 목소리가 없어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는 구약의

시의 표현 방법을 찬양이라고 말씀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한다.

우리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음악이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감정이 풍부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연극을 보는 것보다 더욱 감동적인 것이 뮤지컬을 보는 것이다. 영화를 볼 때도 음악효과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영화의 감동이 적다. 그래서 음악가의 감정이 문필가의 감정보다 훨씬 풍부하다.

하나님께 멋진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감사의 표현이 찬양이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면 우리의 찬양은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게 된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하는 모습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이다.

찬양은 묘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18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한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본문 17절 말씀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갖고 해야 한다. 그런 일을 할 때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감사하는 특별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 사랑한다면 감사를 표현해

Worldwide Church Directory.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탁지역 교회'. Grid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갈보리장로교회, 다민족 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벨엘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안드록교회, 알칸사 제자들교회, 앵커리지열린문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은누리교회, 워싱턴아시아장로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망의교회)



## 위드 지저스의 삶

‘플리처상’을 세 차례 수상한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과 역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 하라리(Yuval Harari)는 “세계는 코로나 이전(BC, 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C, 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AC)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코로나 이전(BC)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요? 수많은 세계인들이 백신을 맞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 퇴치되지 않았습니다. 의학자들은, 이제 인류는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코로나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시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위드 코로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업소들이 고객들에게 백신접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

고, 여행과 출장은 많은 제재를 받습니다.

계속적인 새 변이의 등장, 분노와 우울감 등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늘어나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물가 상승과 물류대란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점점 코로나 이전의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믿음으로 ‘위드 지저스’(With Jesus)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위드 지저스’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아담에게서도 하나님 앞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요셉, 수없이 넘어졌지만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했

던 베드로와 예수의 제자들... 모든 환난과 핍박의 역사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위드 지저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위드 지저스’의 삶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지하 동굴에 숨고, 순교까지 당했지만 철저히 위상숭배를 거부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위드 지저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저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위드 지저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 ‘중국 내륙선교의 개척자’이자 ‘믿음 선교(Faith Mission)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 조선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 최초로 조선 땅을 밟은 미국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 미국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 자신들을 서양귀신이 라고 부르며 조소와 조롱을 퍼

붓는 조선인들에게 ‘위드 지저스’의 삶으로 복음을 전한 분들입니다.

또한 일제 강점기 동안에 신 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주 기철 목사,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았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잠든 15개국 417명의 선교사들은 극한 환경 속에서도 ‘위드 지저스’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는 ‘위드 지저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린 성도들, 암 투병 중에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들,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사랑의 주스’ 박스로 제 3세계 어린이들을 섬기는 성도들, 팬데믹의 풍랑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배자로 살고 있는

성도들... 모두 ‘위드 지저스’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With Corona)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위드 지저스’(With Jesus)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위드 코로나’시대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꼭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위드 지저스’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 COP26 새 기후협약 합의 성공 '중단' 아닌 '감축' 비판도...

## NYT, 온실가스 배출 가장 큰 영향 석탄감축 명시한 최초 기후협약 보도

영국 글래스고에서 지난 13일,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세계 각국이 석탄 사용의 단계적 감축 등을 포함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에 합의했다. 이날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온 화석연료인 석탄의 감축을 명시한 최초의 기후협약이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국가 간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설정해 다른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선진국들이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 기금을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협의된 내용만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겠다는 국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망한다(Here's What Happened on the Final Day of the COP26 Climate Talks: In Glasgow, diplomats from almost 200 countries agreed to do more to fight climate change and aid vulnerable nations. They also left crucial questions unresolved).

이번 COP26은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어렵게 합의에 도달했다.

초기 협상 초안에는 석탄발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인도를 중심으로 한 반대파의 주도하에 '감축'으로 바뀌었다.

인도 부펜더 야다브 환경및 기후장관은 개발도상국들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개발의제와 빈곤되지 문제가 있다"라며 석탄과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제안 수정을 요구했다.

결국 협정은 폐기나 중단이 아닌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

다.

알록 샤르마 COP26 의장은 협정이 이렇게 전개된 것에 대해 "심각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정적인 목소리로 협정 자체를 타결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호소했다.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세계가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을 기후변화 종식의 시작으로 되돌아보기를 희망한다"라며 "우리 모두 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몇 년간 해야 할 일이 아직 엄청나게 많다"라며 "오늘의 합의는 큰 진전이며, 무엇보다 석탄을 단

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와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는 로드맵을 끌어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존 케리 미 기후특사 역시 이날 협정을 통해 전 세계가 "기후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전보다 더 깨끗한 공기, 더 안전한 물, 더 건강한 지구를 확보하는 데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의 연약한 행성(지구)은 여전히 한 가닥 실에 매달려 있으며, 기후 참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비상모드로 전환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탄소배출량) 제로에 도달할 확률 자체가 '제로'가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국들은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내년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점검한다. 지금 각국이 제출한 목표대로라면 지구온도 상승폭이 2.4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할 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더위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위스 환경부 장관 시모네타 소마루가도 석탄과 화석 연료 보조금에 대한 초기 합의가 완화된 것에 "깊이 실망했다"며 "이는 우리를 1.5라는 숫자에 도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엔 기후협약 문서에 석탄 감축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만으로 합의가 성공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석탄은 현재 전체 탄소배출량의 40%가량을 차지한다. 따라서 석탄 감축은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핵심적이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거론된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45%까지 줄여야 하며, 50년에는 0%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회담 결과에 대해 "문구 몇 개는 수정할 수 있었어도, COP26의 중요한 신호는 바꾸지 못한다. '석탄의 시대'는 종말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정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은 현재 석탄발전 의존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이득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벌여온 환경단체 중 한 곳인 국제적 비정부기구 '액션에이 드인터내셔널'의 라스 코흐는 '석탄만 감축 사항에 포함된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약이 "한 세기 이상 석유와 가스 생산을 명분으로 환경을 오염시켜온 부유

한 국가들이 빠져나갈 명분을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프렌즈 오브 더 어스 인터내셔널'의 사라 쇼는 1.5도라는 단어가 합의문에 없다면 의미가 없다며 합의 결과가 "거저" 스캔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반구 국가들은 이번 합의 결과를 "배신"으로 여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정의 뜨거운 주제 중 하나는 재정 지원이었다. 이전에 부유한 나라들은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에 100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으나 해내지 못했다.

재정 지원은 개발도상국이 환경 변화에 맞서 적응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사용될 방침이었다.

샤르마 의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까지 500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22년 6월 30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 제출고시 내용

- (1) 구약주해: 신명기 6 : 1 - 9
- (2) 신약주해: 고린도후서 5 : 11 - 21
- (3) 논문제목: 팬데믹시대 개혁주의 예배를 중심으로 한 목회전략
- (4) 설교원고: 구약 - 시편 95 : 1 - 8, 신약 - 로마서 12 : 1 - 2 (중 택일)
-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징 번호 포함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징이며 Double Space)
-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손기성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 서류제출방법

-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2년 3월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c) 합격자 발표는 46회 총회기간(5월10일 - 13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2년 5월 3일(화) - 4일(수)  
장소: 다민족교회 (부총회장 홍규표 목사 사무)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International Church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 제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2년 6월30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b) 신학교전과과정 성적증명서 1부
- c) 소속교회장 추천서 1부
- d) 소속교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 f) 명함판 사진 2장
- g) 고시료: \$100(USD) Pay to the order : WGPC

###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손기성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3-4일)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당할 수 있음.
  - (3)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 제출처

고시부 서기: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주소: 4008 Lake Glen Rd. Fairfax, VA 22033 U.S.A.  
전화: 703-725-6468 / 이메일 663927@gmail.com

### 기타문의

- a) 고시부 부장: 송일용 목사 (Rev. John Y. Song) kappcator@gmail.com
- b) 고시부 서기: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663927@gmail.com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오세훈 목사  
서기: 장성철 목사  
고시부부장: 송일용 목사  
고시부서기: 손기성 목사

#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캘리포니아 고교 교사, 학생들을 180일내 반기독교 사상으로 세뇌하는 게 목적이라고 고백!

미국 대도시의 공립학교들, 성장체성 혁명후 이제는 반기독교 "사상혁명"중!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자녀들을 공립 학교에서 빼내세요!

지난 9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Sacramento)에 위치한 Inderkum(인덜쿰)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이 너무나 당당하게 학생들을 극좌파 공산주의가 되도록 세뇌화 한다는 고백을 하여 그동안 BLM(Black Lives Matter), Antifa 등 반민주주의, 반기독교 세력들의 실체를 부정하던 학부모들마저도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Gabriel Gipe)은 그냥 수업도 아닌 AP Government라고 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들어가는 "정부, 정치수업" 시간에 정식 수업을 하기보다는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하길, "나는 공립학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외활동(Protest 시위참석 등)을 장려해서 학생들을 과격파로 만들고 공산주의의 마르크스주의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180일 동안 그들을 혁명가로 만들기 위해 매주 학생들에게 좌파의 책자들을 알린다. 예를 들면 좌파들이 하는 안티파 또는 BLM 시위들 등등인데 학생들이 그런 항의시위(Protest)나 행사에 참석했다는 사진을 찍고 올리거나 감상문을 적어 내면 그런 학생들에게 점수에 과점을 준다. 아이들은 점수를 받기위해 참석한다. 내 전략이 늘 먹힌다." 가브리엘 김 선생이 말한 것을 몇 가지 나열해드립니다.

1. "나만큼 극좌파(far-left)는 없을 것이다. 나는 무엇이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극좌파이다.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퀴즈를 낸 후 학생들의 점수 결과를 교실 벽에 다 붙인다. 아이들은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 결국 열심히



Undercover로 들어간 사람에게 자신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학생들을 변화"시킬 열정을 나누는 모습

히 배우고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은 해마다 점점 좌파로 변하게 된다. 극적인 시대는 극적인 사상가들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닌가? 지금 Z-세대가 점점 좌파로 가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우리 같은 교사들이 많다"

2. "나는 안티파 깃발을 교실에 걸어두며 한 학생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했을 때 나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만일 네가 안티파 깃발 때문에 불편하다면 글썽 그것은 마치 극적 우파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거와 같아. 그래서 네가 불편하다면 내가 무슨 해줄 얘기가 없네. 아마도 너는 안티파 깃발에 반대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라고 말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점수를 받으려면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결국은 학생들을 세뇌 교육시킨다"고 말합니다.

3.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자격 과목으로 같은 과에 다른 3명 교수와 함께 가르쳤는데, 그들은 과격파이다. 그들은 확실하게 나의 생각과 같았다.' '사 크로멘토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지만 우파쪽의 교육 받지 못한 백인 농부나 막일하는 백인 사람들로 싸여있기도 한다.'

4. 학생들의 정치 성향을 하나하나 추적한다는 고백도 했

습니다.

5. 가브리엘 선생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을 때 그가 설명하기를 중국의 비참한 문화 혁명의 교훈은 미국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두 개의 연결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은 검은 표범담이었던 헤이 뉴턴 (Huey Newton)과 프레드 햄튼(Fred Hampton)이 이해한 것이다. 행동에 프로파간다인 경제적 것 또 문화적인 프로파간다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다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60년대의 경제 문제 후에 온 문제를 문화혁명이 해결했다. '영속되는 고도의 개인주의, 고도의 경쟁, 자본주의자들의 착취, 부의 통합 이런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경제혁명도 일으켜야 하는데, 중국공산당이 좋은 예라고 말하며 이렇게 연이어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 기초를 바꾼 것처럼 또한 중국이 초조직을 바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제와 문화는 연결되어있어 다른 것을 바꾸지 않고 또 다른 그 하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이동 없이 문화이동을 바꿀 수 없고 또 그 반대도 할 수 없다."

6. '내 생각에는 미국에서 좌

파운동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또 경제적 두 면을 공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힘의 평형구조를 창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교육과 문화전전의 변화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학생들에게,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라고 김은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CRT의 첫 스텝을 통과시킨 법안!

지난 10월 초에 캘리포니아에는 AB101 Ethnic Study(하원에서 만든 법안-인종 공부)라는 이름아래 미국의 건국 역사를 바꾸고 미국을 온전히 피파색깔로 나누게 하는 CRT(Critical Race Theory)라는 "비판적 인종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민주당원들 100% 찬성표와 개빈 뉴섬 주지사가 망설임 없이 사인함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내년 초부터 모든 고등학교들은 졸업을 위해서는 꼭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수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늘 반기독교 정쟁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이미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여러 다른 이름으로 가장하고 변장하여 가르쳐왔다는 것이 이번 캘리포니아주의 고등학교 선생의 고백으로 충분히 알 수 있게 돼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대도시들은 지난 오바마 행정부를 통해 성장체성 혁명이 공립학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가장 반기독교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선"으로 가르치는 정책을 현 정부와 수많은 세력들이 손을 잡고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지 않은가요? 자녀들의 건강한 영혼과 마음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일전에 우연히 어느 교수였던 분이 집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강의한다고 하며, 강의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열쇠를 준다고 했는데 그 열쇠란 무엇인가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며 자기는 방언도 기적도 다 믿지 않는다, 이미 성경이 완성됐을 때 다 끝났다고 하던데요....

-LA에서 이용분 권사

A: 좋은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강의하며 성경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체계를 가장 잘 요약, 설명해놓은 책입니다. 오늘 이 권사님의 질문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천국열쇠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해석이 학자마다 다릅니다. 1)로마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전권을 받았고 그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이 전권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2)Plummer라는 학자는 사도들 전부가 이 권리를 받았고 베드로는 그 수위이다. 3)Ederson과 Lightfoot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 사명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4)칼빈은 베드로가 사도직을 맡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5)Carr은 유대교에서 서기관이 임직될 때 상징적인 열쇠를 준 것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 '천국열쇠...' 는 베드로의 사도직 재확인 한 것 방언, 기적은 현재도 있어...예수 재림 때 끝나

우리는 칼빈이 말한 4번째 것을 취하고 또한 이 천국열쇠는 오늘날의 교회에도 준 것인데 교회의 거룩한 복음선포로 천국 문이 열려지고 닫혀 질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모든 죄가 용서 받을 수 있기에 본인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요 복음을 거부하면 천국 문이 닫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질문인 "성경이 이미 완성되었기에 나는 방언도 기적도 다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믿던 믿지 않던 주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방언과 기적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아마 이 교수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전13:8-10)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에서 온전한 것을 성경으로 해석하여 성경이 완성되면 예언도 방언도 그치고 폐하여진다고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온전한 것은 사실 성경이 아니라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고전13:12).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그때는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다 그치게 될 것입니다.

방언과 기적과 치유가 성경완성 후에는 다 사라지고 그쳤다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목사들이 있으나 지금도 방언은 그치지 않고 존재하며 상담자인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치유도 과거 사도시대 만큼의 은사처럼 강력한 역사는 없으나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치유를 주시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히13:8). 어제의 예수님은 오늘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2

###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2)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 Exam Subjects

- a) Written Test :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b) Written Assignment :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Deuteronomy 6 : 1 - 9
  - 2) NT Exegesis Text : 2 Corinthians 5 : 11 - 21
  - 3) Thesis Topic : Pastoral Ministry Centered on Reformed Worship in the Pandemic Era.
  - 4) Sermon Text : O.T- Psalms 95 : 1 - 8, N.T- Romans 12 : 1 - 2 (choose one)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i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KisungSon-OTExegesisPaper.pdf)
- c) Oral Interview

###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22.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22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b)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6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0-13, 2022).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 3(Tue)~4(Wed), 2022
- b) Place :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International Church (Vice Moderator Rev. Timothy Hong)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2.
-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g) Fee: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WGPC

###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3-4, 2022) through Rev. Kisung Son.
- b)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제출처

Rev. Kisung Son  
Address : 4008 Lake Glen Rd. Fairfax, VA 22033 U.S.A.  
Cell : (703) 725-6468 E-mail : 663927@gmail.com

### 기타문의

-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John Y. Song (818) 282-0112 kapcpastor@gmail.com
-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Kisung Son (703) 725-6468 663927@gmail.com

##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 오세훈 목사  
서기 : 장성철 목사  
고시부부장 : 송일웅 목사  
고시부서기 : 손기성 목사

#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제 지인 중에 독일계 목사님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로잔 디아스포라 분과위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알게 되었고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 3차 로잔대회에서 “Scattered to Gather” 라는 책자도 같이 출판했던 분과위원 중 한분입니다. 지금은 텍사스의 샌 안토니오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를 하다가 코비드19 백신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롯한 모든 교인들이 백신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신학과 전전년설을 신봉하는 교회에서 모두가 백신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이상 설명은 안했지만 저는 그 이유를 잘 압니다.

백신이 성경에 나오는 “집승의 표”이고 백신을 맞으면 “베리칩”(Verification Chip)이 몸속에 들어간다는 신학적인 이유에서 집단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미국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종교적인 다양한 이유로 백신 접종률이 심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디아스포라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믿었던 하나님, 여전히 주관적으로 세계 곳곳에 퍼져가는 이 주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정도 밖에 안 되시는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로 우리를 천국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줄을 짝 세워놓고 백신 여부로 구원이 이뤄지거나 못 이뤄지게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제가 사역했던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얼음판을 걸으며 섬기는 알라신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것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내 틀 속에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를 내 수준으로 축소시켜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놓지는 않는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그냥 박스 안에 가둬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내 목적에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는지요? 예배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 초라함을 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이 예배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함이란 결코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내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 된다고 마음속에 원망이 있습니까? 지금은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믿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gypack@hotmail.com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美 교회 98% 현장예배 재개

대부분의 미국 개신교회가 현장예배로 돌아갔지만 출석률은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라이프웨이리서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프웨이는 올해 9월 1일부터 29일까지 미국 개신교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예배개방과 출석률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목회자의 98%는 현재 현장예배를 위해 교회를 개방했다고 답했으며, 이는 코로나 전염병 발생 이전인 2020년 1월과 비교할 때 거의 동일한 비율이다.

반면 올해 8월과 2020년 1월 예배 출석률은 큰 격차를 보였다. 코로나 이전 출석률과 비교했을 때 35%는 “50%에서 70% 사이”, 30%는 “70%에서 90% 사이”라고 답했다. 절반 미만의 출석률을 보인 교회는 13%로 집계됐다.

아울러 교회 8곳 중 1곳은 출석률이 코로나 이전의 “90%에서 100%” 정도, 9%는 “대우행 이전보다 인원이 더 늘었다”라고 답했다.

예배 출석률이 전염병 이전의 30% 미만으로 급감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국 흑인 목회자들이 백인 목사보다 무려 12.5배 더 높았다.

스콧 매크널 라이프웨이리서치 이사는 “많은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전체 교인이 물리적으로 함께 모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예배 참석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오늘날의 현장 예배 참석률은 코로나 이전과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우행 기간 동안 모든 교회의 경로는 달랐고, 사역의 특정 부분을 재개하는 각 단계는 중요하다”라며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초기 몇 달 동안 나라를 황폐화해 흑인 및 황인 사회가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례로 뉴욕시가 발표한 자료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백인보다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을 두 배나 더 많이 죽인 것을 보여준다. 전국 데이터도 비슷한 추세를 반영했다”라며 “이러한 차이가 흑인 교인들이 현장예배로 더디게 복귀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목회자의 73%는 8월 현장 예배 참석 수가 “100명 미만”이고, 그 중 40%는 매주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신자가 “50명 미만”이라고 했다.

반면 현장예배 참석자 수가 “250명 이상”이라고 답한 목회자는 6% 미만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라이프웨이는 소형교회가 대형교회보다 예배 인원 회복에 유리하며, 미국의 대다수 개신교인은 여전히 전염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크널은 “대부분의 소형교회는 여전히 전염병 이전의 출석률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그들 중 더 많은 수가 대형교회보다 회복 지점에 더욱 가까이 도달하고 있다”면서 “소형교회는 자연스럽게 소규모 모임이 안전하다는 인식과 온라인 모임을 위한 기술 차이, 관계적 연대의 강점 등에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장예배 참석경향은 소형교회에 유망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 우리암·광복 부자를 아십니까

한국의 독립과 교육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파한 우리암(禹利岩, Franklin E. C. Williams, 1883-1962) 우광복(禹光福, George Z. Williams, 1907-1994) 선교사 부자(父子) 기념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암·우광복 선교사기념사업회(회장 노시청)는 충남 공주 옥룡동 산34 일대 ‘영명동산 기독교선교 유적 정비 설계’ 아이디어 공모를 냈다. 사업회는 내년 12월까지 우리암 우광복 후손 찾기 및 초청 행사, 선교사 묘역 정비, 후손 초청 8·15 광복절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또 2023년 1월부터 선교유적 순례자의 길 정비,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독립 유공자 추서, 특집 방송 및 영화 제작을 추진한다.

사업회는 최근 공주 영명학교에서 (사)한국선교유적연구회(회장 서만철)와 (학)감리교영명학원(이사장 표용은), 한국기독교선교연구원(CBMC) 충남연합회(회장 강성민), 공주CBMC(회장 박용서), 의정부CBMC(회장 이성복)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 선교에 평생을 바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기여한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기념사업과 선교유적에 대한 홍보와 활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인플레 커지자 ‘저소득’ ‘중도’ 민주당 등져

인플레이션이 미국 정치 지형을 흔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승리 원천이었던 중도 성향, 무소속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은 식료품이나 휘발유, 난방, 주거비 등 생활 필수 영역에 도드라져 나타나 이들 계층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분간 인플레이션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 공동여론조사에서 ‘오늘 당장 선거를 하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가 공화당을 답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 응답은 41%였다.

중도층이나 저소득층에서의 지지 철회가 컸다. 자신의 경제가 좋지 않거나 나쁘다고 한 응답자 사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율은 각각 28%, 63%로 나타났다. 공화당이 35% 우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번 응답자 중 83%는 2018년 중간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 응답자 사이에서 공화당 지지율은 14%에 그쳤다. 저소득층 사이에서 극적인 지지 변경이 발생한 것이다.

대표적 스윙보터로 꼽히는 무소속 층 이탈도 많았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무소속이라고 밝힌 응답자 사이에서 내년 중간선거 가상대결 결과는 민주당 32%, 공화당 50%로 나타났다. 2018년 중간선거 때 이들 응답자 사이에서 양당 지지율은 각각 54%, 42%로 정반대였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역시 41%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무당층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45%까지 올랐다.

응답자 70%는 경제 전망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절반은 인플레이션의 직접

적 책임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돌렸다. 현 정부 경제 정책 지지 응답은 39%에 그쳤다.

WP는 “정책 입안자들은 소비 급증과 공급 중단이 결합해 식품, 가스, 주택 같은 필수품 비용이 커지는 악마적이고 생소한 곤경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은 실제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는 구조다. 리처드 커턴 미시간대 소비자조사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인 하위 3분의 1은 임금 인상과 정부 지원으로 1년 전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을 보고했다. 하지만 저소득 미국인과 중산층 미국인 4분의 1은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해 생활 수준이 떨어졌다고 말한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이 실질 임금을 낮춰 저소득층의 체감 충격이 크다는 것이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 인프라법안이 공급망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설명했지만 항구나 수로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이 구현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백악관은 인플레이션을 즉시 반전시킬 확실한 도구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 역대급 장바구니 물가... “바이든의 세금 탕”

“추수감사절 감사할 이유는 많지만, 바이든의 세금은 아니다”(앤드류 클라이드 조지아 하원의원).



요즘 미국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바이든의 추수감사절 세금(#Biden's ThanksgivingTax)’이라는 트위터 태그가 유행이다. ‘역대급’ 평가를 받는 식료품 가격을 나열한 뒤 태그를 붙여 트위터에 올리는 식이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 밤상 민심을 겨냥한 여론전이다. 장바구니 물가를 조 바이든 대통령 실책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실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추수감사절 비용이 기록적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추수감사절의 상징인 칠면조 가격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13일 미 농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16파운드 이하 냉동 칠면조 도매가격은 현재 파운드당 평균 1.41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이보다 큰 칠면조 가격도 평균 파운드당 1.39달러로 지난해보다 약 20% 상승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인플레이션 폭주와 공급망 병목, 코로나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가 한꺼번에 맞물리는 시기와 겹쳤다. 비료나 동물사료, 농기계 연료 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생산 가격이 치솟았다.

블룸버그는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선 가금류 손질이 어려워졌고, 포장 공장과 운송회사의 인력 부족으로 식료품 진열대 빈칸이 많아졌다”며 “전 세계적 문제인 식품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비싼 가격 때문에 칠면조 한 마리를 통째로 사지 않고 가슴살만 주문하는 소비자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다. 물량도 부족하고 가격도 치솟는 이중 악재가 발생한 것이다. 미 농무부 블로그에 “칠면조 제품은 많이 있지만, 특정 크기를 염두에 뒀다면 일찍 쇼핑하라”는 글이 올라왔을 정도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은 칠면조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명절 준비에 필수인 다른 재료도 덩달아 뛰고 있다. 우유, 설탕 소매가격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고, 맥주와 커피 등 주류 가격도 치솟았다.

온라인 대출 업체인 크레더를 재무 분석가 다니엘 로카토는 4인 가족 기준 추수감사절 저녁 식탁 최소 비용이 26.57달러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추정치에는 샐러드 등 애피타이저나 사이드 메뉴, 파이나 주류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로카토는 “와

인이나 맥주 가격이 빠져있다. 뉴욕 맨해튼이라면 이보다 두 배가 더 들 것”이라며 “30년 만의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올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더 큰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소외계층 식품지원 사업을 하는 웨스트 엘라 베마 푸드뱅크는 올 추수감사절 칠면조 대신 치킨을 준비하기로 했다. 업체 관계자는 “가격 상승으로 칠면조 구매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실패한 경제 정책 덕분에 내야 할 비용”(로저 윌리엄스 텍사스 하원의원), “역사상 가장 비싼 추수감사절”(엘리스 스티퍼니 뉴욕 하원의원) 등 공화당의 공세는 물가상승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겨냥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데 있다. 특히 연휴가 연이어 다가오면서 시름은 더 크다. 미국 농업 대출금융기관인 애그아메리카 커트 코빈튼 수석 이사는 “식량 공급 라인의 문제가 급방 완화될 것 같지는 않다. 크리스마스와 내년 부활절, 혹은 봄 방학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커지는 인플레 압력...

미국 노동부는 올해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상승했다고 11일 발표했다. 1990년 12월 이후 3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CPI는 5월부터 매달 5%대 상승을 지속하다 9월에는 5.4%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10월에는 6%대로 올라서며 약 31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8.6% 오르며 2010년 11월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를 찍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의 10월 소비자물가는 4.1% 올라 1997년 통계 집계 시작 이래 가장 크게 올랐다.

개별 국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독일이 4.5%로 동서독 통일로 물가가 급등했던 1993년 8월 이후 28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보였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낮은 2% 중후반이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이어나가는 상황이다. 영국은 3.1% 올랐다.

러시아는 9월 7.4%에서 10월 중순 들어 7.8%로 더 올랐다. 터키는 19.9% 뛰었다.

중국은 10월 생산자물가가 13.5% 오르며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후 25년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파른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그동안 크게 늘어난 유동성과 공급이 절대적으로 달리는 병목현상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우행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저마다 경기침체 방어를 위해 돈을 풀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상품 가치가 올랐다.

여기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늘어난 상품 수요를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특히 반도체 공급 부족은 거의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다.

공급 부족은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물가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1년 전 30달러였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2월말 기준으로 80달러대까지 급등했다.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며 “이는 인플레이션이 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상승하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135. 장영기(1888-1956)

장영기(張英基)는 1888년에 서울 서소문 내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 김마리아나가 세례명으로 보여 그도 서울에서 감리교인이었을 것이다. 그는 18세였던 1905년에 어머니와 동생 장영진 등 가족과 함께 멕시코에 이민했다. 4년간의 노동계약이 끝나면서 1909년 5월에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달 12일에 메리다 지방회관에서 메리다 한인감리교회가 설립되면서 그의 가족이 본 교회에 등록했을 것이다.

1911년 4월에 메리다 지방회가 있었을 때 신입회원으로 장영기가 소개되었는데 이는 멕시코 이주 후 6년 만이었고 두 번째는 1918년 11월에 메리다의 오스파바 캄 지방에서 청년 토론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보도에서다. 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난 다음 달인 1919년 4월 29일 자 신한민보에 장영기 어머니의 나라사랑이 다음과 같이 게재되었다:

“당지에 거류하는 장영기와 장영진 양씨의 대부인 마리아나 씨 노인은 당년이 근 6순인데 또한 신병이 있어 하루도 편하지 못한 노인인고로 더욱 그 자체를 위하여 생신잔치를 베풀려하였는데 그 부인이 만류하고 그 자체를 불러 말씀하되 지금은 어느 때나 조반석죽도 두려운 터이니 우리 민족 전체가 빈 손과 일이나 독립 자유 코져 전쟁하느라 주리고 헐벗음이 형언치 못할 때라. 이 때에 생일이란 다 무엇이냐? 너희는 나라를 위하여 생명과 재산을 다 희생하여라. 충정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듬해 5월 1일에 메리다에서 그의 가정에 딸이 태어나 기쁨이나 동포 아원군이 별세하는 슬픔도 있었다.

생활난으로 살길을 찾아 1921년 3월경에 남녀 동포 200여 명이 제2고향인 멕시코를 떠나 쿠바로 이주하였을 때 장영기 가족도 함께했다. 그해 10월 5일에 한인 동포 중에 감리교인과 안식교인이 있었으나 교회를 고집하지 않고 한인감리교회를 설립했다.

1923년에 장영기가 국민회 맞단사스 지방회의 총무로 선임되었다. 그해 5월, 전염병으로 어린이가 고생할 때 박스같이 취중에 어저귀 따는 칼로 김덕순을 해하려 할 때에 장영기가 그 칼을 빼앗

려고 하다가 두 손가락이 중상을 입었는데 지방회는 박수길을 잡아 벌금 25원과 징역 3개월에 선고했다. 이런 중에도 아들 식 부인의 치료비, 국민대표회 대표 경비, 의무금, 내지 구제금을 냈다.

1924년 1월, 맞단사스 지방에 남자 34명, 한국 부인 11명, 멕시코 부인 4명, 소년 15명, 소녀 11명, 멕시코 부인의 소생으로 소년 2명과 소녀 4명이 거주했다. 그해 3월 15일에 태어났고, 사망도 3인이었으며, 임종동포와 한국동포가 각각 한 명이었다. 그 해 우연히 미국감리교회가 파송한 알미

라 B. 터커 여선교사(대부인)를 소개했다. “맞단사스 지방에 처음으로 세운 중앙기독교교회에 총무로 시무하는 미국인 대부인은 우리 한인동포에게 많은 동정과 사랑을 베풀었다는 본보에 수차례 보도하였거니와 이제 다시 대부인께서 한인 중 젊은 남녀의 덕, 체, 지의 삼육 발전을 위하여 정신력과 물질력을 다하심을 여기 잠깐 소개하고자 하나이다. 물론 대부인께서.. 우리를 심방하고 삼일운동 당시의 사실을 자세히 소개해주셨으므로 우리는 비로소 본국편원을 소상히 알게 되었다. 그 후 종종 다른 전도 부인과 목사들과 같이 와서 전도하며 미진한 본국편원을 알렸고, 아동들의 교육을 권장키 위하여 지필묵 등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기부하였으며 특별히 여자들에게 수놓는 법을 가르쳐서 금사 육사로서 우리의 금수강산 같은 것을 수놓게 하며, 찬송가를 가르쳐서 어린이 성음을 발달케 하셨다. 최근 2, 3주일 전에는 약 40원 가량이 되는 운동기계를 우리 아동의 유희당에 기부하셨다. 또한 요사이 본 지방회 재무 임명일의 부인 박후아가 신병으로 고통함을 보고 대부인은 5원의 동정금을 기부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간혹 아동들에게 과자 등을 주어 어린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매 1주일 혹은 2주일마다 우리들을 심방하는 바 그 차비만 하더라도 적지 않다. 대부인께서 항상 말씀하기를 한국의 금수강산을 사모하며 사랑하여 잊을 수 없다. 다시 그곳으로 가서 한국 형제자매들과 고락을 같이하고 싶다 하셨다. 13년 동안이나 정 들고 복음을

1929년 쿠바 동양구역연회가 조직돼 목사안수 받고 한인감리교회 담임  
1933년 터커 선교사와 다툼으로 사임, 맞단사스 한인안식교회 조직해

전파하던 한국을 잊지 못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맞단사스에 재류하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사랑이 많으신 대부인은 깊은 인연이 있어서 수삭 전에 본국에 기별하여 국악과 신악과 찬송가와 기타 종교에 관한 서적을 청구하여 우리 교회와 야학교에 기부하셨다. 이제 대부인의 과거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면 28세에 미국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된 6명중 하나로서 한국에 나아갈 때는 즉 1911년 8월이었다. 경성 사직골 사시는 김 목사에게 한국말을 약 6삭 동안 배운 후에 수표교 다리 예배당에서 약 1년 동안 아동교육에 종사하는 동시에 세례담담을 주장하셨다. 그 후 원상서교회 사업에 근무하실 때 부근 한교회에 다니며 약 3년간 성경과목을 교수하셨다. 그 후 춘천으로 이거하여 약 1년 동안 전도하던 그 때는 즉 1916년 10월이었다. 미국 계산 모친의 신병이 위중하다는 급보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모친의 병 치료에 약 1년 동안 지성으로 뒷바라지하여... 효과를 얻은 후... 약 1년간은 미국 각처로 다니며 한국 사정을 미국 교우들에게 소개하셨다. 그 인연에 또 다시 한국 춘천에 건너가서 교회사업을 계속하다가 1년 후에 원상으로

부로 구제상점을 다시 열기로 하고 물품 매입 문서와 지급이 등 문부는 총무 김덕순이 간수하고, 문부감사원으로 장영기가 선정되었다. 5월에 장영기가 교장을 역임했던 민성학교 진급식이 있었고, 11월에 장영기 권사의 주례로 남녀아동 100여 명과 40여 명의 외국인 참석하던 가운데 33세의 박희성과 17세의 이윤아가 반한국식 반 서양식으로 결혼했다.

1927년 5월 5일자 신한민보에 장영기

1927년 5월에 지방회 회장 장영기는 대부인의 사진을 신한민보에 관각하게 하며 동관 각지에는 본 지방회와 한인 교회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그해 6월에 민성 국어학교는 재정곤란으로 정학하였는데 6월에 개학과 임원을 선정했다. 교장에 김덕순, 교사에 임천택, 간사에 고창덕이었고, 영어과의 임원은 교장에 양준명, 교사에 대부인, 조교사에 립천택이었다. 1929년에는 노동 공황이 심각한 가운데 한인인 40명 내외에 남녀 아동을 합하여 120명이었고, 1주일 노동값이 150원 정도에 그쳤다. 이에 박창운의 500원 기

부로 구제상점을 다시 열기로 하고 물품 매입 문서와 지급이 등 문부는 총무 김덕순이 간수하고, 문부감사원으로 장영기가 선정되었다. 5월에 장영기가 교장을 역임했던 민성학교 진급식이 있었고, 11월에 장영기 권사의 주례로 남녀아동 100여 명과 40여 명의 외국인 참석하던 가운데 33세의 박희성과 17세의 이윤아가 반한국식 반 서양식으로 결혼했다.

맞단사스 한인감리교회 목사

1929년에 쿠바 동양구역연회가 조직되면서 연회의 결의로 맞단사스 지역의 프 로스 S. 레이나 목사를 한인감리교회 담임목사로 파송하면서 한국교회의 우수성에 박수를 보냈다. 그래서 한인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8년이 되던 1929년 10월에 장영기가 목사로 그리고 방경일, 이우식, 차희관, 고창덕, 태극일, 호근덕을 집사로 선임했다. 교인은 53명이었고, 주일학교를 조직하였는데 25명이 등록했다. 그해 성탄절 이브에 처음으로 성찬식이 있었다. 이듬해 1월 16일의 신한민보는 ‘맞단사스 한인교회의 서광이 새롭고, 목사는 장영기 씨요 집사는 7인이라는 제

1933년 5월 5일자 신한민보에 장영기

의 기사에서 당시 상황을 알게 된다. “이 나라 형편이 또한 각종 직업과 노동이 곤란함을 따라 일반 교우들의 물질력이 박약한 관계상 교회발전이 못됨을 항상 유감으로 알던 바 마침 우리 본국에 가서 십여 년 동안 전도 사업에 종사하시던 미국인 미스 벨 독가란 부인이 쿠바에 전도사명을 띠고 왔다가 우리 한인 교회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서 우리 일반 동포와 말하 교섭상 경이와 친절함이 우금 6년 동안에 교회 일에 대하여 서로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선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목사까지 선택하여 이 나라 교회에서 각 처 교회 목사와 여러 장로와 10월 23일 수요일 하오 3시에 집회하여 미국 감독이 목사 장영기 씨에게 안수례를 거행하고 교회 집사 7인까지 선 택하였습니다. 모든 형제자매께서 본 교회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 나이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집사인 양준명이 장영기 목사가 권하는 대로 강도상 상으로 올라가 가르쳤는데 터커 선교사가 강도상 상에는 목사의 좌석인 고로 다음부터는 내려가 강도하라고 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사면청원을 제출하는 등 교회 집사 중 마귀가 있어서 목사를 미혹케 하여 죄를 짓게 한다는 등 자급 자만의 연사 등으로 교회에서 터커 선교사 이하 여러 교인들이 분개하며 장차 제명할 뜻까지 없지 않았다.

1930년 4월 장영기가 모친의 환갑을 맞아 내외국인을 초대하여 환갑잔치를 베풀고, ‘내가 빈한한 탓으로 연로하신 어머니를 마음과 같이 봉양 못함이 자식된 데에 일대 유감이 된다. 그리고 우리 세 형제 중에 아무 두 명은 멀리 미국(멕시코)에 있으므로 오늘 어머니 환갑연에도 근성을 못 하게 됐기에 모친님께서 그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자신된 나로서 유감만만입니다. 또한 나의 방장이 멕시코 경성에 계신데 그의 환갑에 참석하지 못함도 우리의 당한 환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해 6월에 장인환 의사의 추도식이 지방회 장 사회로 있었는데 기도순서를 담당했고, 1931년 3월에 지방회 제22주년 기념식에서도 기도했고, 득남의 기쁨이 있었던 그해 7월에 지방회 임원 교체식에서 축사하였다. 한동안 문을 닫았던 민성 국어학교 개학식이 있던 1932년 3월에 ‘개학찬성’이라는 제하로 연설했으며, 그해 6월에 민성국어학교 시험식이 있었는데 학생 12명에게 연필을 나누어주어 동포들이 치하했다.

1933년 5월에 장영기와 터커 선교사 간에 불미스러운 시비가 발생하여 터커 선교사가 사면하면서 장영기의 신앙이 타락되었고, 선교부 연락까지 끊어져서 교회의 곤란은 막심하였다. 이후 장영기는 맞단사스 한인안식교회를 조직하고 전도사와 목사로 활동하다가 은퇴한 후 1956년 6월 13일에 향년 68세로 타계했다. 2017년 한국정부는 그의 독립유공을 기려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damien.sohn@gmail.com



장영기 전도사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헌양예배: 오후 2: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7:00(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남가주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714)481-2779,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영전 (장소: KDC, 침례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310)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정년퇴직후: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6: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 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271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영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 김한효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요일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열매교회</b>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8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b>엘피스가족원</b>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선교회교회 협동목사) 상담사: (월-금) 오전 10:00-오후 4:00(영양) 사제: 1. 영성사제 2. 교회 상담사 3. 영성사제 4. 사제퇴직 사제 http://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채플: 오전 9:30(월-토) 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성) 주일 4부예배: 오전 1:00 새벽 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토)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j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b>좋은마을교회</b>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영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600 Imperial Hwy, Torrance, CA 9050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주요교회</b>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 배 :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 요 예 배 :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g.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하늘소망교회</b>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모임: ‘영성경이 원어제’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43)



###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개혁신앙 목회자(The Reformed Pastor)” (11)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제 9장 특정 양들에 대한 교리교육과 가르침의 의무를 위한 지침

가장 큰 위험은 부지런함과 기술의 결여에서 발생할 수 있다. 나 자신도 기술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젊고 미숙한 목회자들을 지도하기에 미흡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주의해야 하는데 첫째, 그대의 양들이 이 개인적인 교리교육과 가르침의 과정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 둘째,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 일을 수행해야 한다.

1. 양들을 훈련에 임하도록 이끌기 위한 지침
- 1) 모범을 보이라

방법은 그 일이 저들에게 유익하고 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그대는 이를 위해 저들이 확신을 가질 만큼 강력한 설교를 행하여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과 특히 구원의 기본원칙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필수적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쫓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히5:12).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사람들은 그에게서 이를 배워야

자가 되지 않겠다는 뜻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일을 고안하고 부여하신 이는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이니 그들이 이에 대해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원망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자, 목회자의 일이란 모든 양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다.

3) 성도들을 이해시킨 후에는 교리 문답서를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교인 가정에서 나누어 주라.

신도들에게 교리문답서를 배부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목사가 먼저 회중에게 교리문답서를 돌릴 터이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알리고 자기가 직접 가가호호를 찾아다니며 교

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포기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찾아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라.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지 인식하게 하라. 그를 포기하기 전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자.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한 영혼은 너무도 귀중하여서 노력의 부족으로 그 영혼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그들과 함께 해야 하고 전혀 치료책이 없지 않는 한 절망적이라 하여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2. 훈련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

## 목회자가 본 보이고 훈련의 혜택과 필요성 확신시켜야 책망할 것 있으면 가장 무지하고 문제 많은 사람부터

가장 좋은 방법은 목사가 일상생활과 목회를 통해 성도들이 그의 능력과 신실함 그리고 가장되지 아니한 사랑을 그들에게 쏟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가장 주된 방식은 목회자가 일상적인 삶과 목회에서 온전한 분을 보여 양들에게 그의 능력과 신실함과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심는 것이다. 신실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사랑이 많고 명성이 높은 다른 목회자가 오면 양들이 더 큰 유익을 받을 것임을 안다면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남아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 2) 양들에게 본 훈련의 혜택과 필요성을 확신시키라.
- 그 다음 할 일은 이 배움이 양들에게 큰 유익이 되며 그들 영혼에 꼭 필요한 것임을 확신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대의 제안에 대한 양들의 동의를 얻는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받기 원하는 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원칙들이 담겨 있다. 사람들은 이 원칙들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으로써 그 지식을 더욱 성장시켜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는 큰 죄가 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첫 번째 원칙들을 모른다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 원칙들을 배워야 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히 기본원칙들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나이는 사람에게 배움이 더 필요하다. 그의 사역자들에게 배우기를 거절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배우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에게 배우지 않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배우지 않겠다는 말이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의 제

리문답서를 돌리며 이 일에 따르면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교리문답서를 돌린지 한 달에서 6주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는 그동안 성도들에게 교리문답을 익힐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4) 양들을 온유하게 대하고 저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절대 피하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만약 그들 중에 이미 다른 교리문답을 배운 사람이 있으면 굳이 다시 배울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라. 처음에는 사람들을 온유하게 다루고 저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확신 있게 대하라. 아주 친절하고 설득력 있고 매력있는 태도로 그들을 다루어 그에 관한 기록이 우리 후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하라.

5) 완고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단호히 꾸짖으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했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고전3:10)라고 위대한 사도께서 말했다.

1) 양들의 마음을 달래고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몇 마디 일상적인 말을 던지라.

한 가구나 혹은 몇몇 가구에 사는 성도들이 찾아오면 짧은 인사말로 격려하여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쾌한 감정이나 내키지 않는 마음, 혹은 낙심의 감정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자.

hyojungyoo2@yahoo.com



##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시립대학교 교수)

### 일상의 감사

얼마전 아침에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았다. 물이 데워지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가 싶어서 오래 기다렸지만 여전히 미지근한 물이 나왔다. 생각해보니 며칠 전부터 뜨거운 물이 시원치 않게 나온 것 같았다. 온수기에 가보니 내부에서 무엇이 깨졌는지 밑받침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고 차고 바닥에도 물이 흘러 있었다. 대강 물을 닦아내고 핸드맨 아저씨에게 연락했지만 바빠서 다음 날 늦은 오후에나 올 수 있다고 했다. 급한 대로 큰 냄비에 물을 끓여서 머리를 감았다. 어린 시절 머리를 감으려면 엄마가 물을 데워주던 생각이 났다. 요즘은 아이들은 수도꼭지에서 바로 나오는 온수가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선교지를 방문할 때에나 경험할 듯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서민들이 뜨거운 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70년대 초반 즈음이었다. 그래서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하려면 목욕탕에 가거나 집에서 뜨겁게 끓인 물에 찬 물을 섞어서 물을 아껴가며 씻어야 했다. 거의 오십 년 만에 물을 끓여서 머리를 감으려니 나름대로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어서 재미있기도 했다.

다음 날 늦은 오후에 핸드맨 아저씨가 왔다. 어차피 새로운 온수기로 바꿀 상황이니 보이에도 부담되는 큰 물탱크가 아닌 tankless 온수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저씨가 여러 번 tankless 온수기를 설치해 보았다고 하기에 걱정 없이 일을 맡겼다. 그런데 늦은 밤까지 다섯 시간 넘게 걸려서 새 온수기로 바꾸었지만 작동이 되지 않으니 짜증이 났다. error 사인이 나왔다. 다른 전문가를 부르기도 그렇고 답답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결국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새 부품을 사용한 후에야 온수기가 작동되었다. 안도의 마음과 함께 뜨거운 물 없이 꼬박 이틀을 보내면서 일상의 삶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를 드렸다. 더운 물을 틀면 당연히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온수기가 고장이 나보니 뜨거운 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 것인지가 새삼스럽게 느껴진 것이다. 또 비록 온수기는 고장 났지만 개스가 있어서 물을 데워 적당히 씻을 수 있던 것도 감사했다.

올해도 추수감사절이 다가온다. 돌아보니 올해는 친구의 죽음, 딸의 수술, 올케 언니의 죽음 등으로 마음이 유난히도 어려웠던 한 해였다. 그러나 탄식과 슬픔, 안타까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곁에 바짝 붙어 계시면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믿음에 대한 도전도 하셨음을 고백한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더 이상은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내 며칠이라도 쉬 수 있는 환경을 주셨던 것도 감사한다. 감사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그리고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자비에 대한 반응이 감사일 것이다. 그렇지만 민수기를 읽다보면 애굽 땅을 벗어난 이후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민망스럽기까지 하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물을 주시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이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오죽하면 모세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던 날부터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할 했을까?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도 잊어버리는 백성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에게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태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은혜를 주제로 한 많은 복음 설교 중에 “은혜”라는 곡이 있다. 평소 애당연하게 누렸던 일들이 돌아보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가사이다. 그 곡의 가사처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을 인하여 마음 깊이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감사하는 계절이 되기를 소망한다.

lpyun@apu.edu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b>뉴욕제세마네교회</b>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h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354		<b>뉴욕목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일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57-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b>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금요일예배: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kc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b>뉴욕새벽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성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반부: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b>베이스айд 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종식 청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인종족문화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2/1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b>사랑의동산교회</b>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b>어린양 개혁 교회</b> 담임목사: 유승래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Tel: (845)848-2013		<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788-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 저녁 9:00 7: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수,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토론토 가든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일 5부예배: 오전 11:00 주일 6부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b>멕시코 현지인 교회</b>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빈센티노 대학교 교수 2. 임하늘 신학대학교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가?

자동차에 개스를 주입하기 위해서 주유소에 갑니다. 펌프에 가던 주유소로 가지 않고 심방을 가던 방향에 있는 주유소로 갑니다. 개스를 주입하기 위해서 개스 펌프를 드는데 정면에 한 홀리스가 개스를 넣고 있는 다른 차의 유리창을 닦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는 순간 혹시 나에게 오지 않겠지 하면서 자동차에 개스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바램은 단지 나의 바램뿐이었습니다. 홀리스가 내 자동차에 다가와서 앞 유리창을 닦기 시작합니다. 속으로 "그래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유리창을 닦는 것을 제지하지 않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고 닦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홀리스가 유리창을 닦는 동안 나는 속으로 틱을 얼마나 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앞 유리창을 다 닦고 나서 내가 서있는 쪽으로 오더니 옆 유리창을 닦습니다. 어떻게 홀리스가 유리창을 닦아 보는데 나의 마음이 조금씩 실망감과 후회, 그리고

팁을 많이 주려고 했던 마음이 사그라지게 되었습니다.

주유소 같은데서 자동차의 유리창을 닦을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유리창에 물을 묻히고 닦아 내릴 때 유리창을 닦은 더러운 물이 자동차 본체에 흘러 지지분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휴지를 들고 유리창을 닦으면서 신속하게 물이 본체에 흐르지 않도록 닦아야 합니다. 홀리스는 유리창을 깨끗이 닦기는 하는데 더러운 물이 본체에 흐르도록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하얀색 자동차에 땀물이 끼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재빨리 휴지를 뽑아 흘러내린 땀물을 닦으려고 했지만 더욱 지지분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순간 홀리스가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팁을 받았을텐데 라는 생각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동족이 받는 저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아비아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왕상14:13).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가져도 감동하시

고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며 우리의 선한 생각과 착한 마음에 따라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잠24:12).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까지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축복보다 훨씬 크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절에 과연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ynosupbois@hotmail.com



KWMC 제34차 전국연차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신임 대표의장에 이승중 목사

KWMC 제34차 전국연차총회, 조용중 신임사무총장 취임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제 34차 전국연차총회가 11월 15일부터 사흘간 볼티모어 벨엘교회(담임 백신중 목사)에서 열려 신임 대표의장에 이승중 목사를 선출했다. 또 신임 공동의장으로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외 8명을 선임했다.

첫날 개회예배 후에는 신구 사무총장 이취임식이 열려 신임 사무총장으로 조용중 목사가 취임했다. 개회예배는 지용주 목사(시라쿠스한인교회) 인도로 최은종 목사(MC TV) 기도 후 고석희 목사가 설교("표비명", 빌 1:20-21, 행20:24)했으며 나

광상 목사 집례로 성찬예식을 하고 배현찬 목사 축도로 마쳤다.

둘째 날은 오전 9시부터 경건회를 하고 이상진 대표의장(타코마중앙장로교회) 사회로 회의에 들어가 조직보강과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에는 '선교적 도전의 시간'으로 △한인디아스포라와 선교적 사명(백운영 목사, 영생장로교회) △선교적 자원 개발과 동원 방안(송제임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선교적 교회, 필그림선교교회의 예(양준길 목사, 필그림선교교회) △K-A 다음세대 선교적 사명 계승 전략(박성일 목사, 기쁨의교회) △다민족교회사역을 통한 세계선교(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선교현장 보고(송성자 목사, 순복음사랑교회) 순서로 이어졌다. (유원정 기자)

세계기독교언론협 제7회 독후감공모 시상식 및 총회

우수상 장소영, 허양희 사모  
장려상 사론정 집사, 홍수연 청년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조명환목사)가 매년 주최하고 있는 제 7회 독후감공모전에서 우수상 장소영 사모(웰터락처치), 허양희 사모(텍사스 주님



제 7회 독후감공모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 제 6회는 팬데믹으로 인해 중으로 시상식을 가졌다. 선정됐다. 올해 추천 도서로는 '믿음과 0.2%의 가능성(김영길)', '돌과 남가주동신교회'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매달립(토미테니), '세상이 흥내낼 수 없는 기독교(제라드 윌슨)',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피터 스키지)이었으며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가기 바라는 취지에서 올해도 공모전을 실시했다. 심사를 맡은 백승철 시인(목사, 문학평론가. 에피포드예술과문학 대표)은 "지난해보다 응모편수가 적었으나 응모한 독후감 내용이 탄실해서 위안이 됐다"고 말하며 심사평을 전했다(심사평 15면 게재) 제 7회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은 12월 9일(목) 오전 11시 Hometel Suites(3160 W 8th St LA CA 90005) 회의실에서 언론인협회 총회와 함께 있을 예정이다. (이성자 기자)

회장 이병은 목사, 부회장 채왕규 목사

필라교협 제 42회 정기총회

대필라델피아지역한인교회협의회(이하 필라교협) 제 42회

정기총회가 11월 14일 오후 5시 한인삼일장로교회(담임 이



필라교협 제 42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장 김기영 목사, 부회장 나성균 목사

살롯교협 제 18회 정기총회

살롯한인교회협의회 제 18회 정기총회가 11월 15일 오전 11시 남부교회에서 열렸다. 살롯교협은 펜데믹으로 2년간 모임을 갖지 못했다. 1부 예배는 송성섭 목사 인도 기도 박응식 목사, 설교 김기영 목사, 축도 나성균 목사 로 마치고 이어진 총회에서 서기 회계 총무 보고를 받은 후

임원선거에 들어갔다. 부회장으로 섬기던 김기영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한 후 전례에 따라 전임 회장들 가운데 다시 한 번 임의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나성균 목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은 회장단에 임임하고 회의를 마쳤다. (기사제공: 살롯교협)

병은 목사)에서 열렸다. 총회를 통해 △회장 이병은 목사와 목사 △부회장 채왕규 목사(뉴비전교회)를 선출했다. 기타 임원은 △평신도 부회장 이광호 장로 △총무 임수병 목사(사랑의교회) △서기 박치호 목사(필라델피아갈리교회) △회계 최승찬 장로 등이다. 필라교협은 61개의 회원교회가 소속돼 있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총신대 김인환 전 총장 별세

"마지막 순간 온힘 다해 찬양"

총신대학교 전 총장 김인환 목사(사진)가 11월 15일 0시 30분(한국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75세. 김인환 목사는 본지 "시론" 필자로 구독자들과 교감한 바 있다(2019년 1월-2020년 12월). 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마련됐으며 장례는 총신대와 대신대학교장으로 치른다. 발인예배는 17일 오전 11시 총신대 사당 캠퍼스 대강당에서 드리며 장지는 뉴저지 프랭클린 메모리얼



김인환총장 공원이다. 김 총장은 웨일즈대학교대학

원에서 구약학박사학위를 받고 총신대 신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평생교육원 원장, 교무처장을 거쳐 2004년 총신대 제3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총신대 총장 후에는 대신대학교 제7대 총장과 아프리카 스와질란드대학 총장을 역임했다. 말년에 뉴저지 노스 브런스윅에 거주하던 김 총장은 작년 한국 방문시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해오던 중 지난 10월초 미국으로 돌아와 신변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국 체류 중 평소 출석하던 뉴저지 아가페장로교회(담임 목사 김남수)에서 예배를 드

리며 10월 24일 한국출발 이틀 전 주일예배에서는 감동적인 설교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치료를 위해 다시 귀국한 후 채 3주가 못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유족에 따르면 김 총장은 소전을 받기 직전 온 힘을 다해 찬양을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으로는 정정숙 사모와 장남 재신, 장녀 유미, 차남 재형이 있다. 고인의 형은 서울신학교 학장 김준환 목사이며, 차남 재형은 아가페장로교회 EM 아가페로발처치를 이끌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인/터/뷰 AGCTS 학장 심상은 목사

"소명 받은 학생들이 사역의 꿈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성회(AG) 캘리포니아신학교(CTS)의 학장 심상은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역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받은 사역의 소명과 꿈을 펼쳐나가려면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신학교가 있어야 한다"며 "AGCTS가 소명 받은 자가 사역의 소명과 꿈을 잘 펼쳐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AGCTS는 지난 1988년 갈보리선교교회 당시 담임이던 이재선 목사가 설립한 학교이며 AG 산하 신학교중 하나다. "AG 총회에는 17개의 신학

금이 전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AGCTS가 재학생들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소명받은 자가 학비문제로 사역의 꿈을 접어야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사역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학교가 도움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입학하기 전

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멀리 루마니아에서 사역중인 선교사도 함께하고 있다. 그는 본교가 갈보리선교교회와 함께 탄자니아 선교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탄자니아 다른살렘에 신학교 건물을 세웠다고 밝혔다. "3년 전에 개교한 학교인데 건물이 노후돼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난 10월 3일부터 2주간 현지방문을 했었는데 저희 학생들이 현지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학생 한명 당 1년에 270달러). 탄자니아신학교를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 학장은 앞으로 학교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박사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전공 개설과 교수확충, 그리고 학교건물 확장을 통해 보다 나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싶다고 하며 하나님나라의 일꾼인 주의 종을 양성하는데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714)739-4710, (714)715-5999 (박준호 기자)



심상은 학장

1988년 갈보리선교교회 담임 이재선 목사가 설립 18번째 AG 교단 신학교... 탄자니아신학교도 운영

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로는 뱅가드대학교와 하나님의성회신학교가 있으며 한인신학교는 뉴욕 프라미스교회내에 있는 뉴욕신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내년엔 18번째 AG 교단신학교로 가입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상은 학장은 AGCTS의 장점은 교단신학교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단에 속하지 않고 운영 중인 초교과 신학교와는 달리 AG교단에 속해 있는 학교라 교단에서 주는 혜택 전도사교시와 목사교시를 통해 AG 미국본부에서 목회자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AGCTS의 장점은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다닐수 있다는 것이다. "사역자로서 소명받은 자로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 것이 교단신학의 장점이지요. 더군다나 저희학교의 경우 입학비 100달러와 학생회비 50달러를 제외한 전 과목 장학

소명의 확신이 있는지 여부를 인터뷰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본교 교수로 사역했으며 지난 2019년 학장에 취임한 심상은 목사는 학생들의 열정을 칭찬하며 "저에게 주어진 학장의 역할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훈련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신학적 지식과 성경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인격과 영성을 겸비해서 사역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AGCTS는 재학생들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천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사역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온라인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위스콘신, 일리노이 시카고, 네바다 라스베가스, 루이지애나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회와 함께 탄자니아 선교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탄자니아 다른살렘에 신학교 건물을 세웠다고 밝혔다. "3년 전에 개교한 학교인데 건물이 노후돼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난 10월 3일부터 2주간 현지방문을 했었는데 저희 학생들이 현지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학생 한명 당 1년에 270달러). 탄자니아신학교를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 학장은 앞으로 학교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박사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전공 개설과 교수확충, 그리고 학교건물 확장을 통해 보다 나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싶다고 하며 하나님나라의 일꾼인 주의 종을 양성하는데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714)739-4710, (714)715-5999 (박준호 기자)

# 동부교계 기사판

## 최용렬 목사 별세

후러신사태교회회를 섬겼으며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제 25대 회장을 역임한 최용렬 목사(사진)가 11월 9일 8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장례예배는 가족장으로 12일 저녁 중앙장사사에서 김대준 목사의 집례로 드려졌으며, 13일 워싱턴 공원묘지에 안치됐다.

## 오른손구제센터 추수감사절 후원

오른손구제센터(대표 안승백 목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명절이 더 외롭고 우울한 싱글맘 가정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려고 준비하면서 후원자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식품, 생필품, 학용품, 의류, 신발 등이나 후원금(Payable to RHCC, The Right Hand Charity Center)을 “35-24 Union St. # B Flushing, NY 11354”로 보내면 된다.

▲문의: (646)233-6722

## 뉴욕목사회 증경회장단 해체 발표

“현 목사회 사태 막으려 했지만...책임 통감”

뉴욕목사회 증경회장단이 기자회견을 갖고 증경회장단 해체를 발표했다.

지난 9일 저녁 6시30분 거성 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회장 안창의 목사, 부회장 이만호 목사, 총무 정순원 목사가 참석했다.

임원단은 “현 뉴욕목사회의 파행을 막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증경회장단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목사는 “목사회가 압초에 부딪혔다. 파산 직전이다. 친목단체로 위로해주는 목사회가 돼야하는데 회기 내내 격정과 염려가 지속됐다. 회기 초기에는 전, 현직 회장을 만나게 해서 문제(재정)를 해결하고 화해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임시총회를 통해 제명을 시켰다. 그래서 증경회장단을 만들고 중재하려 했지만 결과는 더 나빠졌다. 회장이나 선관위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 증경회장단 존재가치가 없어졌다”고 해체 이유를 밝혔다.



뉴욕목사회 증경회장단이 해체 발표했다. 왼쪽부터 정순원 목사, 안창의 목사, 이만호 목사.

정순원 목사는 “이번 회기는 ‘사회회기’라 생각한다. 이만호 부회장의 생각에 100% 동의하며 총무로 책임을 느낀다. 이런 모습은 전도의 문을 막는 사태를 초래한다”며 안타까워했다.

회장 안창의 목사는 “사실 확인도 안되고 증경회장단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권면도 안 된다”고 말했다.

뉴욕목사회는 11월 29일 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16일 임시총회를 갖는다고 알려졌다.

의제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정부회장 후보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유원정 기자)

## 후보탈락, 전임회장 형사고발 등 발표

뉴욕목사회 기자회견, 회장 및 선관위원장 입장 밝혀

49회기 뉴욕목사회(회장 김진화 목사)가 11월 12일 오후 4시 베이사이드 삼원각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장 김진화 목사는 최근 이준성 목사, 마바울 목사, 증경회장단이 연속으로 기자회견을 가져 반 49회기 목사회적 입장을 밝혔으나 제때 응답하지 못했으며, 회원들이 의문과 염려가 있는 가운데 선관위와 조사위원회를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용의 목사는 △회장후보 마바울 목사에 대해 “마 목사가 시행세칙 18항을 어기고 기자회견 및 회장후보 사퇴를 했기에 피선거권을 영원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부회장 임후보 허윤준 목사 탈락은 “선관위 세칙에 관한 임후보자의 서명을 받기위한 선관위 모임에서 허 목사가 보여준 언행은 목사의 기본자질에도 미달되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회칙 19조에 의해 제명까지 갈 수 있지만 임후보 자격만 제한한다고 말했다.

또 △일체의 모임 식사 대접에 대한 위반사항이 김홍성 목사와 허윤준 목사에게 있었으며 재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로 경고했다고 말했다.

마바울 목사가 회장후보에 사퇴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임후보 공고를 했으며, 등록자가 없자 회칙에 따라 2명의 목사를 관수 추천했

으며, 13일 오후 4시까지 등록을 마친 임후보자가 정식 회장 임후보자가 된다고 말했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김명옥 목사는 △이준성 목사의 48회기 공금 미 이월금에 대한 목사회 재천명을 통해 “49회기는 이준성 목사를 임시총회의 결의에 의해 제명처리하고 관계당국에 형사고발 중이며 끝까지 상기금액을 인계하지 않을 경우 관계당국의 법적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진화 목사는 돈 선거에 대한 사례와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이번 회기는 돈을 쓰지 않는 선거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또 이준성 직전회장 제명과정 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며, 이 과정에서 2명의 증경회장 징계의 타당성을 설명했으며, 최근 해체한 증경회장단의 행위는 겁박이라고 말했다.

발표 후 마바울 목사의 입후보자 공탁금 7천 달러, 수표 지불정지, 11월 16일로 예정됐던 임시총회 이메일 관련 등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가 주최한 제8차 다민족선교대회 2021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

뉴욕장로연합회 주최 제8차 다민족선교대회 2021

뉴욕장로연합회가 주최한 제 8차 다민족선교대회 2021이 14일 저녁 5시부터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개최됐다.

“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라는 주제로 주강사는 김남수 목사(프라미스교회 원로)를 세웠으며 팬데믹 상황에서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본지 제 1849호 10면 참조].

회장 송윤섭 장로는 대회를 개최하면서 “코로나팬데믹의 어려움에 타협하거나 피하지 않고 대회를 개최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참가 단체, 개인 모두의 열정을 통해 다민족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선교현장에서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1부 예배는 박마이클 목사 인도로 찬양과경배 뉴저지선한목자교회 찬양팀, 대화사 및 기도 송윤섭 장로, 찬양 케리 그마남성중창단, 설교 김남수 목사, 헌금기도 김경열 목사, 헌금송 뉴욕크로마하프찬양단, 축도 김희복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남수 목사는 “요셉의 장막”(시78:67-7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선교는 선전도 아니

고 실적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며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주님의 지상최대 명령(마28:19,20)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결정되고 출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부 찬양과 선교나눔은 황규복 장로 사회로 The Game Changers for next generation Mission(대표 유이킴 목사), 뉴옥실버미션(대표 김재열 목사), 프라미스교회한국 선교팀(대표 박원희), 필그림 선교무용단(대표 최윤자), 간증 한진영 선교사, 한재홍 목사(과테말라 성경선교), 이준호 목사(북한선교), Global Church for All(대표 박마이클 목사), 월드밀알선교함장단(대표 다니엘리), 뉴욕장로함장단(대표 김재관), 선한목자교회(유스선교팀)(대표 Chester Kim 목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선교후원금이 참가 찬양팀과 선교발표자들에게 전달됐으며 준비위원장 정권식 장로의 인사 및 광고가 있은 후 참석자 모두 “은 세상 위하여”를 찬양하고 이만호 목사 마침기도와 이준성 목사의 식사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주최 “말씀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뱀의 지혜, 비둘기 순결함을 가지라”

뉴욕교협 주최 “말씀 세미나” 강사 송일현 목사

뉴욕교협이 주최한 “말씀 세미나”가 1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는 송일현 목사로서, 서울 보라성교회 담임이며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이사장, 두나미스신학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세미나는 김경열 목사 인도로 김경열 목사(엘피스선교회)의 경배와 찬양후 환영사 김희복 목사(뉴욕교회연합회장), 강사 소개 양민석 목사(세미나준비위원장), 성경봉독 이준병 장로(영신도부회장), 강의 송일현 목사, 헌금, 광고 임영건 목사(총무), 축도 신현택 목사, 식사기도 김정숙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회장 김희복 목사는 “뉴욕교협이 말씀으로 출발하자는 의미로 이 세미나는 개최하게 됐다”며 “팬데믹 상황에서도 뉴욕까지 오신 것에 감사하며, 확실히 하나님을 만난 강사 송일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도전을 받는 시간되기 바란다”며 환영했다.

양민석 목사는 송일현 목사를 소개하며 “30여년 목회하시며 80여 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치유의 은사를 많이 나타내셨다”며 “치유와 회복과 도전

의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일현 목사는 “말씀과 비유”(막4:10-13, 33-34)라는 제목으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라”(마10:16)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강론했다.

“먼저 뱀의 지혜 4가지는 ① 때를 잘 안다. 겨울을 준비해 동면한다. 사람도 때를 잘 알아야 하는데 지금은 자다가 깨다. ②절대 죽은(잔) 것은 먹지 않는다. 우리도 성령의 뜨거운 떡을 먹어야 한다. ③허물을 벗는다. 먼저 나뭇가지(십자가) 사이에서 벗는다.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가시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가시관을 생각하라. 바위틈에서 벗는다. 좁은 길로 가라. 그 험악한 끝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영생의 길이 있다. ④위험을 잘 피한다(보석으로). 다양한 색은 은사를 의미한다. 은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말했다.

“두 번째 비유로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한다. 비둘기의 특징을 6가지로 설명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가며 주께서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주 앞에서 쉰 채 정진하는 자들이 되자”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 “하나님의 뜻을 물어 기도하라”

뉴욕교협 미스바회개운동 1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 48회기 첫 사업으로 시작하는 미스바회개운동을 위한 1차 준비기도회가 11일 오전 10시30분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성경통독세미나 준비기도회와 함께 진행됐다.

회장 김희복 목사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며 “뉴욕교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 회개운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강성해지는 교협과 동포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1부 예배는 준비위원장 박마이클 목사 인도로 김경열 목사의 경배와찬양 후 기도 박이스라엘 목사, 성경봉독 김일태 이사장, 설교 이만호 목사, 합심 통성기도 하정민 목사(먼저 회개하고 먼저 그 나와와 의를 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하여), 박향우 목사(미스바회개운동 집회를 위하여), 문중은 목사(동포사회와 뉴욕교협 및 목사회, 미국을 위하여), 송윤섭 장로(뉴욕장로연합회 주최 다민족선교대회와 조국 대한민국 선거를 위하여), 이병수 목사(북한 복음화 및 세계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라홍재 목사(성경통독 세미나를 위하여) 순서로 진행됐다.

이만호 목사는 “점점 강성하나라”(삼하5:1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신앙은 진보 발전 계시적이어야 한다.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지 말고 생활에서 간증하며 살아야 한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

에서도 이기고 벗어난다. 본문에서 다윗이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뜻을 물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 회개운동을 통해 뉴욕의 교회가 강성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목사는 현재 위치로 교회당을 이전하게 된 과정을 간증하며, 힘든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오늘의 평안과 행복을 갖게 된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서 헌금기도 순성대 장로, 광고 임영건 총무, 축도 신현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2부 회의 및 경과보고는 김희복 목사 사회로 회개기도 한재홍 목사, 회장인사, 미스바회 운동 준비보고 박마이클 목사, 100독 성경통독 세미나 강사 폴킴 선교사 인사, 폐회 및 식사기도 김원기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교협은 미스바회개운동 성회를 위해 11월 2일부터 40일 릴레이기도를 하고 있으며 11일 현재 734명이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회는 12월 12일(오후 5시)부터 15일까지 킨즈한인교회(김바나바 목사)에서 열린다.

한편 성경통독 세미나는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 폴킴 선교사는 북한 통독식 리더자로 홍콩, 중국, 인도, 싱가포르, 태국 등과 이슬람권에서도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미스바회개운동 1차 준비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아가페열방찬양제에서 김남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With Corona” 말고 “With Jesus”

제12회 아가페열방찬양제, 뉴저지 아가페장로교회 주최

뉴저지 아가페장로교회(담임 김남수 목사) 연례행사인 아가페열방찬양제가 11월 7일 온오프라인으로 올려졌다.

올해 12회를 맞은 이 찬양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에도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 따라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대망하며 시작했다.

제12회 아가페열방찬양제는 찬양제 디렉터 이창호 집사의 사회로 김남수 담임목사의 인사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다.

김남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12회 찬양제의 키워드인 ‘With Jesus’를 강조하며 “세상이 운동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고 절망하며 ‘With Corona’에 집중하고 있는 때일수록 우리는 ‘With Jesus’를 의지하며 더욱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법을 말씀을 통해 살피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며 “이것이 12회 찬양제의 키워드이며 찬양제 개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2년 전 세워진 아가페장로교회 EM으로 독립교회인 아가페글로벌처치의 Jay Kim 목사의 인사와 함께 아가페글로벌처치 찬양팀의 찬양이 이어졌다. 아가페글로벌처치 찬양팀은 유명 기획사와 가스펠 음반 제작을 한 최고의 2세 찬양팀으로 이날 회중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이 찬양제는 그동안 130여개 팀이 참여해 한인 유명가스펠 싱어와 찬양팀 뿐만 아니라 흑인 찬양밴드팀, 히스패닉처치 찬양팀, 중국교회 찬양팀 등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다양한 팀들이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타민족 교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모멘텀도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 “다문화선교, 소그룹모임 강화”

한교총 '제2기 젊은목회자포럼' ...목회환경 변화와 전략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이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책임질 30-40대 목회자들과 함께 급변하는 목회 환경에 필요한 목회 전략을 모색했다.

한교총은 1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광림수도원에서 제2기 젊은목회자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는 '글로벌 목회환경의 변화와 전략'이었다. 한교총은 교파를 초월해 젊은 목회자들이 연합하며 한국교회의 미래 목회를 준비하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포럼을 개최해왔다.

소강석 대표회장은 11일 개회예배 설교에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참여와 체험, 소통과 경험이라는 플랫폼 처치를 이룬 교회는 예배의 회복 탄력성이 엄청 빠르다는 결과를 보여줬다"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예배의 플랫폼에 참여하게 이끌고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 예배의 생명성, 하나님 임재의 신비감을 경험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이 속히 교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떡과 잔을 갖춘 플랫폼을 준비해야 한다"며 "예배와 교회를 경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락 강남중앙침례교회 목사는 이날 '오래된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최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 16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했던 생생한 경험을 풀어내며 젊은 목회자들의 공감을 샀다.

그는 당시 정립해 지금 많은 교회에까지 적용 중인 예배 중심의 사역 원리를 소개했다. 5대 비전인 'W.O.R.L.D'로 '예배하는 교회(Worshipping)', 소그룹을 통한 친교 사역에 힘쓰는 '소그룹 교회(Oikos)', 구제와 봉사여 힘쓰며 '뚫는 교회(Reaching Out)', 선교와 전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Life Giving)', 말씀으로 성도와 교회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제자 삼는 교회(Discipling)'다. 이를 바탕으로 그가 미국에 세운 세미안교회는 부흥을 경험했다.

최 목사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둔 지금, 한국교회와

국내 거주 외국인, 다문화 가정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으로 부임한 뒤 눈에 띈 선교지가 있다"며 "바로 250만명에 이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고 했다. 그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들과 함께 축구대회 등을 열어 국내 거주 난민, 다문화 가정을 섬긴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새로운 선교의 대상이 확장되고 있으며, 복음은 여전히 전할 기회가 열려 있다"며 "우리에게 다가온 '땅끝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선교 대상이다. 그들을 놓치지 말자"고 당부했다.

지용근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2021년 한국교회 변화 및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지 대표는 "경제 선진국이라 불리는 전 세계 14개국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된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신앙이 제일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며 코로나19를 지나며 적신호가 켜진 한국교회의 현실을 짚었다.

지 대표는 이런 현실을 극복할 방안으로 교회 내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독일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이들은 체력이 강한 개인이 아니라 안정된 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교회가 소그룹을 통해 교인들끼리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서로에게 안정된 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었으면, 또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럼 둘째 날인 12일 김성복 꽃재교회 목사는 '위드코로나 시대 미래 목회 실제'란 주제로 강연에서 "성도들이 어느 공간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옴니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온·오프라인 채널 간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옴니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안치용 ESG연구소장은 환경보전과 사회적 가치 등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교회는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다.

## “교회 공공성 회복 통해 코로나 넘자”

예장통합 106회기 정책협의회..내년 9월까지 이어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류영모 목사)가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106회기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비욘드 코로나(Beyond Corona)'로 정하고 코로나19를 넘어서기 위해 교회의 공공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목회 전략 수립에 나섰다.

예장통합은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106회기 정책협의회를 열고 '비욘드코로나목회전략위원회'(비욘드전략위원회·전국위원장 황해국 목사)의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정책협의회는 한 회기 동안 총회가 지향하는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 자리로, 총회 임원과 11개 상임부 부장, 7개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69개 노회장과 총회 산하 기관 실무 책임자가 참석하는 전국 규모의 협의체다. 비욘드전략위원회는 106회 총회 주제인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에 따라 코로나 이후 필요한 목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조직됐다.

부서기 김한호 목사는 "위드코로나를 넘어 비욘드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는 교회는 공공성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코로나19를 넘어서기 위해 한국교회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교회의 본래성을 회복한 뒤 공공성과 공적 복음을 회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동시에 교회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욘드전략위원회는 수도권(새문안교회)과 서부(전주완산교회) 중부(대전영락교회) 동부(대

구상동교회) 지역에서 오는 22일과 26일, 다음 달 7일, 10일에 각각 세미나를 열고 지역교회 목회자들에게 총회 정책을 홍보한다. 지역 세미나에서는 류영모 총회장과 해당 지역 노회장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진행된다. 또 비욘드 코로나 목회전략을 수립한 교회들의 모범 사례 발표도 이어진다. 서울 소망교회(김경진 목사) 성암교회(조주희 목사), 경기도 수인중앙교회(김진 목사), 광주다일교회(김의신 목사) 등의 사례가 소개된다.

류영모 총회장은 설교에서 '비욘드 코로나'를 위해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강조했다. 류 총회장은 "기독교 공교회'를 믿는다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사적(私的) 교회'를 생겨 왔다"면서 "비욘드 코로나 시대를 열기 위해 변명과 성공, 물질주의를 극복하고 공적인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류 총회장은 '절제'를 강조했다. 그는 "14-15세기 인류는 흑사병 앞에 무너졌고 지금은 코로나19로 무너지고 있다"며 "폭발적 인구증가와 창조질서 파괴, 생태계 교란 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2-3년마다 팬데믹을 맞는다. 교회가 먼저 절제하고 창조 세계를 돌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예장통합은 교회 공공성 회복을 위해 '총회 본부 인건 직감인·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성탄 행사' '군 장병과 함께하는 사랑의 온차 전달식' '이주민·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지구별과 함께하는 기후·생태계 위기 대응' 활동도 시작한다.

## ‘아브라함 카이퍼의...’ 독어, 불어판 출간

정성구 전 총신대 총장 출판 감사예배

총신대와 대신대 총장을 역임한 정성구(79) 총신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한국어 저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의 독일어판과 프랑스어판을 각각 출간해 이를 기념하는 번역출판 감사예배를 드렸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를 배출한 독일과 장 칼뱅을 낳은 프랑스 현지에 자유주의에 맞서 하나님 주권을 강조한 카이퍼의 사상을 거꾸로 소개한다는 의미가 있다.

번역출판 감사예배는 8일 서울 서초구 햇빛선교센터의 화평

홀에서 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목회자들이 총출동해 출간을 축하했다. 배광식 예장합동 총회장은 "지혜자의 필살"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지혜와 지식의 출발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 총회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서 칼뱅주의 세계관을 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강요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을 유럽에 새로이 소개하게 돼 기쁘다"고 축하했다.

아브라함 카이퍼(1837-1920)

## 기도/칼럼

### 문제투성이의 인생이라도



박헌순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어찌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탓을 합니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럴듯한 이유와 변명을 내세웁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따지거나 말다툼을 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좁아지고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삶이 점점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지나치게 자기를 탓하며 후회합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를 계속 떠올리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자신을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찍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립니다. 매사에 의욕이나 자신감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무기력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립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남을 탓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실패를 거울로 삼아 자기를 연마합니다. 시련을 자기 발전과 성장의 디딤돌로 삼아 전화위복의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인간 승리의 모델이 되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 등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했습니다. 모두 고난을 통해 인생 역전, 신앙의 패거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문제투성이의 인생이라도 살아낼 만합니다.

"버리지 말고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사41:14). bible66@gmail.com

는 네덜란드의 총리를 지낸 목회자이자 신학자로 교육자와 언론인으로도 활동했다. 신칼뱅주의 운동을 주창했고 인간 중심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전환을 강조했다. 정 박사의 책 독일어판 번역은 40년간 독일 선교사로 사역하는 권능 목사가 맞았고, 프랑스어판은 역시 30년째 파리에서 사역하며 칼뱅수양관을 운영하는 최마가 박사가 담당했다.

김영환 기독교순화원은 독일어판 서평을 통해 "한국 보수주의 신학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이 카이퍼"라며 "국가 교회의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하나님 영역 주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수영 전 장신대 교수는 프

랑스어판 평가에서 "번역은 새로운 창작이고 번역하는 순간 새로운 작품이 된다"며 "모국어 사용자가 아닌 수준에서 프랑스어 번역도 나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황우여 전 부총리, 이재서 총신대 총장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정 교수는 총신대 신대원을 거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유학하고 화이트필드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총신대와 대신대에서 40년 동안 칼뱅주의와 실천신학을 가르쳤다. 그는 1985년 한국칼뱅주의연구원을 세워 칼뱅주의 신앙운동에 힘써 왔다. 지난 9월 김담복스님 영역 주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수영 전 장신대 교수는 프

## 청년 성도-사역자 간 교회문제 시각차 크다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리서치 연구소'를 표방하는 ARCC 연구소는 지난 4월 교회 청년 성도 1017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조사에서 청년들이 꼽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였다. 청년들은 각 항목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울 경우 1점을, 아주 불만족스럽다고 여길 때 5점을 매겼는데,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는 3.63점을 기록해 청년들의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의 헌신 강요'(3.60), '목회자의 설교'(3.59) 등을 지적한 목소리도 많았다.

그렇다면 청년 사역자들의 생각은 어떤가. ARCC 연구소 소장인 전병철 아신대 교수가 같은 대학 이수인 교수와 함께 최근 발표한 논문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이유와 대안 모색을 위한 델파이 연구'에는 주목할 만한 결과가 담겨 있

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 사역자가 생각하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복음의 본질을 듣지 못해서' '교회의 비사상적 모습' 등이었다. 교회와 청년들을 위해 무엇

이었다. 목회자와 관련된 부분이 대표적이다.

청년들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를 꼽았으며, 청년 사역자들은 비슷한 성격을 띠는 '목회자와 리더십의 문제'에는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를 상대로 교회의 언택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묻는 설문을 진행했는데, 청년 사역자들의 생각과 달리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아주 높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 사역자들이 청년을 비롯한 성도들의 요구나 불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청년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청년 사역자들부터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델파이(Delphi) 조사-'반복 앙케이트법'으로 불리는 조사 기법이다. 응답자들은 개방형

## 먼저 감사하고 전통이 되면

(2면에서 계속) 어원상 감사하다(thank)와 생각하다(think)는 그 뿌리가 같다. 감사는 과학적 실체로서 최고 백신이자 인생의 면역체계다. 서양에선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한다. 감사할 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감사를 모르는 삶 자체가 형벌인 셈이다.

실제로 올림픽 선수들의 만족도를 조사해본 결과 금메달리스트보다 더 크게 만족한 사람은 동메달리스트였다고 한다. 금메달에 감격이 있다면 동메달에는 감사가 있다. 아마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다 살아 돌아온 사람의 심경 같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감사의 힘은 실로 크다. 어려운 여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자신에게 여전히 허락되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면 심리적 고통의 양이 감소될 수 있다. 그래서 감사를 심리학자들은 가장 강력 한 자기 보호기능 중 하나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적극적인 회복탄력성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결과들을 현실 부정 을 통한 마취효과로 폄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취된 사람들이 더 강한 회복 동기를 지니지는 않는다. 더 적극적으로 일에 몰입했다는 것은 희망을 느꼈기 때문이다. 같은 물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말이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1789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미국의 '의무'로서 지켜할 국경일로 선포하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히 그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간구하는 것은 온 나라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상원과 하원이 공동 위원회를 통해 내게 미합중국의 국민들에게 국가 감사의 날과 기도를 추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11월 26일 목요일을 온 나라의 국민들이,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감사함을 느낀다면 심리적 고통의 양이 감소될 수 있다. 그래서 감사를 심리학자들은 가장 강력 한 자기 보호기능 중 하나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적극적인 회복탄력성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결과들을 현실 부정 을 통한 마취효과로 폄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감사의 힘은 실로 크다. 어려운 여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자신에게 여전히 허락되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면 심리적 고통의 양이 감소될 수 있다. 그래서 감사를 심리학자들은 가장 강력 한 자기 보호기능 중 하나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적극적인 회복탄력성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결과들을 현실 부정 을 통한 마취효과로 폄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 연구진은 지난 1-2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청년 사역자 10명을 상대로 델파이(Delphi, 반복 앙케이트법)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에서 나온 응답들에 각각 '내용 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매겼다. CVR이 1에 가까울수록 많은 응답자가 동의했음을 의미한다. CVR이 1을 기록한 답변들

을 해줘야 하는지 묻는 문항에선 '청년의 삶에 공감해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등이 꼽혔다. 청년 사역이 집중해야 할 영역에선 '신앙교육' '공동체성'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청년 사역자 조사에서 눈에 띄는 직한 내용은 이런 응답들이 아니었다. 청년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와는 다르게 나타난 지점들이 적지 않

있었다. 이 항목에 대한 CVR은 0.6을 기록했다. 앞으로 청년 사역이 집중해야 할 부분을 묻는 항목 역시 마찬가지였다. 코로나19 탓에 온라인 사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청년 사역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언택트 소통'이나 '온라인 콘텐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기록한 CVR은 각각 0.4에 불과했다. 전 교수는 "최근 일반 성도

설문인 1차 조사에서 각 질문에 대해 주관식으로 답변하게 된다. 1차 조사에서 나온 답변들에 각각 얼마나 동의하는지 체크하는 게 2차 조사다. 3차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2차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뒤, 다시 각 답변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답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델파이 조사는 심도 있는 결론을 도출할 때 활용한다.

# mission 선교의 창 (182)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 8복(福)에 나타난 선교사의 덕목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한다. 복에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다. 세상적으로 대표되는 것은 유교에서 말한 오복(五福)이 있다. “수(壽): 장수하는 것, 부(富): 풍요, 강령(康寧):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것, 유호덕(攸好德): 도덕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 고종명(考終命): 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누리는 영적인 복이 있다. 성경에서 말한 8복은 소유보다 존재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 선교사는 복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방인 영혼구원을 위해 파송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복된 요소가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 1.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마5:3).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 자체가 복이며 천국이 임한 결과이다. 여기서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말한다. 가난이란 헬라어 원어는 “프도코이(πτωχοι)”로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뜻한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혼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이다. 선교사의 첫째 덕

목은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인간적인 명예나 탐욕이 차 있으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선교사의 업적보다 그 사람이 어떤 자인가

### 3.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5:5). 온유란 말

를 중시하신다.

### 2.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5:4). 여기 “애통하다”는 헬라어로 “펜세오”(πενθέω)로서 격심한 비통을 의미한다. 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 가장 잘 묘사된 곳은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것으로 믿고 슬퍼할 때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가? 자기와 세상의 죄 때문이다. 선교사는 늘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결핍과 무가치성과 추약함에 대해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영혼이 맑아지게 될 것이다.

은 헬라어는 “프라에이스(πραεῖς)”로서 사나운 짐승이 훈련으로 길들여져서 다루기 쉬운 짐승이 된 것을 의미한다. 한자는 따뜻한 ‘온(溫)’ 부드러운 ‘유(柔)’로서 어떤 경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로서 온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힘으로 타인으로부터 모욕과 고난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온화한 성품을 가리킨다. 종이를 구기면 끝까지 구긴 상태로 있지만 비단 천은 아무리 구겨도 다시 펴진다. 선교사는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가 마음에 불편하게 해도 십자의 능력으로 용서하며 비단 천처럼 구겨진 마음과 얼굴을 펴야 한다. 온유하지 않고는 문화와 성격과 모든 것이 이질적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

### 4.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5:6). 의(義)란 헬라어 “디카이오쉬넨(δικαιοσύνην)”로서 옥스포드 원어성경 대전에서는 “윤리적인 면에서 의(Righteousness)와 종교적인 의미의 의(Justice)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이 세상의 불의한 현상에 대하여 깊이 탄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자신의 죄 성에 대해서도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는 자라고 볼 수 있다. 선교사는 바로 영의 양식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와 의(마6:33) 사모해야 한다.

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 마음이 없이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 6.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5:7). 청결이란 단어는 헬라어 “카카로스(καθαρός)”로서 깨끗함, 순전함, 투명함, 단순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잡스러운 생각이나 세속적 욕망 등이 없는 바른 마음을 말하는데 이는 가난한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죄 사함 받고 순전하고 정결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순수한 상태를 말한다. 선교사는 애통합으로 늘 마음

들이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평화의 사람들이 되도록 돕는 자이다.

### 8.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마5:10). 의는 히브리어로는 체데크(chedek)이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쉬넨(δικαιοσύνην)”인데 윤리적인 의인 동시에 더 나아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종교적인 의이다. 그러나 이 ‘의’는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란 성격이 강하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본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난 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언급이라 할 수 있다. 선교사는 주님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이고 또한 핍박을 당할 수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복된 일이다.

### 맺음 말

팔복은 천국에서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나는 수미(首尾) 상응의 완결미를 보이고 있다. 팔복의 각 부분이 ‘복이 있나니(마카리요이)’란 선언으로 시작되며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역설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팔복은 근본적으로 이 지상에서 행해야 할 천국시민의 법과 그 결과로 주어질 종말론적인 복의 선포라고 할 수 있다. 8복은 또 하나의 율법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귀결되어진 천국백성의 원리와 특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8복에 나타난 속성을 덧입어갈 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역이 될 것이다. 이는 어찌 선교사뿐이겠는가? 주님을 따르는 언약백성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jsong007@hanmail.net

8복(福)은 부름 받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와 그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이다. 선교사는 8복처럼 To do보다 To be을 우선할 때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다.

그 목마름이 간절할수록 영적 생명력은 더욱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 5.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5:7). 긍휼이란 헬라어에서 ‘엘레에오(ελεεω)’라는 단어에서 왔으며 자비, 인자, 인애(仁愛), 민망(憫憫), 불쌍히 여김 등의 뜻이 있다. 긍휼의 반대되는 말은 무자비, 잔인, 포악, 무정, 냉정(冷情), 무시이다. 따라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타인의 처지를 자기 처지처럼 여기고 도와주는 덕을 가리킨다. 긍휼은 이론이나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선교사는 주님의 가슴을 품고 현

이 청결하여 자연계시와 특별 계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 7.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이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 화평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eiρηνη)”이다. 이 에이레네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히브리어 샬롬(shalom)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다. 화평은 나와 상대방이 함께 어울려 사는 아름답고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본문에서의 화평은 단순히 현상적,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구원이라는 신학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선교사는 화평의 사자이다. 현 지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①6 빌립보 선교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한 바울은 성령님의 강력한 간섭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가고 싶은 아시아를 막으시고 빌립보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이 발길을 돌려 유럽을 향하는 순간부터 유럽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복음화에 전초기지가 되었던 빌립보교회는 성령님의 간섭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시대에 마케도니아를 대표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완벽한 도시의 조건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비옥한 평원, 그리고 평원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강 그리고 로마에서 이스탄불을 잇는 에그나티아 고속도로(Via Egnatia)를 갖추었습니다. 게다가 가까이 있는 광개요 산에는 유명한 금광이 있었습니다. 빌립보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BC 6세기입니다. 그때는 그리니데스(Krenides)라고 불렀는데 이는 샘물(Spring)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풍부한 빌립보가 그 지경의 ‘샘물’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미 빌립보는 금광과 풍부한 수자원을 갖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빌립 2세가 BC 358년(혹 360년이라는 자료도 있습니다)에 이 도시를 점령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알렉

산더 대제의 아버지인 빌립 2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빌립보에 대한 애착을 가졌습니다. 특히 빌립보 지역의 금광을 좋아했습니다. 빌립 2세는 빌립보 지역의 금광에 대한 소 유권 강화와 경비 강화를 위해서 도시를 개명하였고 도시 개발에 관심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빌립보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BC 168년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가 피드나 전투

에서 로마에 패배하면서 로마가 빌립보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42년에 시저(Caesar)가 사망하자 권력다툼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가 카시우스와 함께 옥타비우스와 안토니를 대항해 빌립보 근처에서 싸웠습니다. 이 전쟁

이 유명한 빌립보 전쟁입니다. 빌립보 전투에서 율리시 시저의 암살자들이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패배합니다. 옥타비우스와 안토니가 로마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이 빌립보 전쟁에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군대로 참전했던 시인 호레이스는 훗날 적장이었던 옥타비우스(아우구스투스)의 후원을 받아 문학 활동(특히 시작활동)을 하며 뛰어난 작품들을 남깁니다. 그

는 로마 후대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활동합니다. 이 빌립보 전쟁은 로마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중요한 전쟁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빌립보 전쟁이 로마의 공화정을 종식시킨 전쟁으로 정리합니다. 이 빌립보 전쟁에서 이긴 옥타비우스는 10년 쯤 지난

후에 옥티움(Actium) 전투에서 자신의 마지막 적적인 안토니 제거하고 황제가 됩니다. 이때 옥타비우스(훗날 아우구스투스로 개명)는 다시 빌립보를 애착합니다. 빌립보를 로마 직할(로마령) 도시로 세우고 이름도 자신의 딸의 이름을 따라 ‘콜로니아 율리아 빅트릭스 빌립보’(그러나 통상은 빌립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 퇴역군인들을 빌립보에 이주시켜 살게 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빌립보를 로마령(직할: the Roman Colony) 도시로 세우면서 빌립보 도시는 더욱 크게 번성했습니다. 빌립보는 농업과 상업이 함께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주변 도시 유력한 무역상들이 빌립보로 가서 무역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만큼 빌립보는 활발한 교역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를 포함한 많은 외지인들이 상주했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빌립보가 로마령(직할) 도시의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면서 많은 외부인들이 출입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정부는 대략 세 가지 목적으로 직할도시를 활용했습니다. 먼저 정복한 땅에 전진기지로 직할도시를 활용했습니다. 새로운 지역 관리수

니다. 직할도시였던 빌립보 시민들이 누렸던 특혜를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우선 빌립보 시민은 로마시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렸습니다. 당대 로마시민권은 헬라 문화권에서 귀족 신분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시민들과 동등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 습니다. 다음, 그들은 로마시민들과 같은 특혜들을 향유했습니다. 로마시민처럼 면세권이 있었고, 항소권이 갖고 있었는데 재판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태형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실형이 선고되어도 선고에 불복하고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는 매를 맞은 바울이 로마시민권자임을 주장할 때 감옥의 간수가 당황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로마 직할시 빌립보에 퇴역군인들이 정착합니다. 그런데 로마 퇴역군인들 중에는 외국군에서 포로로 잡혀 로마군에 편입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시민권자였지만 시민답지 못했던 것처럼 빌립보교회 성도들도 천국시민이었지만 천국시민답지 못했습니다. 빌립보도시 곳곳에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현수막이 있었고 바울이 이 말로 성도들을 설득합니다(빌1:27). chap1207@hotmail.com

## 유럽 복음화의 전초기지 빌립보교회는 성령님 간섭으로 세워져 로마직할시 빌립보는 퇴역군인 정착지...시민답지 못한 모습보여

##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더지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 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3:6-12)찬384장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두려움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의 약속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동사(verbs)-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

려가려 한다-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과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작은 믿음까지 듣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마침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 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출3:13-15)찬214장

모든 물질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가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I AM WHO I AM'을 히브리어문법에 충실하게 영어로 번역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입니다. '나는 스스로 될 나일 것이다' 앞으로 존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알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나이다. 이 이름을 알려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초월자(엘로힘, 엘엘로유, 엘사다이 등)로 존재하셨지만 '여호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초월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초월해 하나님의 나라(천국)를 살 수 있습니다.

### 수 누가 만들었느냐(출4:1-17)찬330장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임마누엘'을 약속받은 후에도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존감이 바닥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사람의 입은 누가 지었느냐? 누가 벼여리나 귀머거리가 되게 했으며, 누가 눈 밝은 자와 맹인이 되게 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모든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

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입이 뻐뻐하고 혀가 둔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고전1:26-29). 오늘도 보배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 목 사명대로 살다보면(출5:1-23)찬333장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노역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더욱 중한 노역을 하게 된 히브리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구간을 달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로 앞에 섰지만 백성으로부터 받은 것은 원망과 손가락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

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사명 따라 살다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주위의 반응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원망을 들을 때도 있고 불공평한 대우와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명자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 금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출6:1-13)찬546장

모세는 자신이 바로에게 했던 말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더욱 심한 노역을 하게 된 것과 그 일로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원망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초월자'로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재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과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속상해하고 있는 모세에게 '너는 지금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 바른길을 잘 가는 중'이라고 평가하시며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며 평가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 토 하나님의 큰 계획(출7:1-7)찬505장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가 바로와 싸우게 될 싸움에 대해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싸우실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바로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것입니다. 모세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는 80세였습니다. 바로 앞에 세우

시기 위해서 40년을 왕궁에서 지내게 하시고 미리 광야 40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큰 계획도 있으십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예상치 않은 일에 대해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음악 이야기(3)

### “주께 감사드리세(Give Thanks with great full heart)”

우리가 감사절에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세(Give Thanks with great full heart)” 라는 곡이 있다. 이 곡은 헨리 스미스(Henry Smith 1952-)라는 송 라이터가 쓴 곡이다. 그가 1978년 신학교를 졸업한 후 일자리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운데 옆친 데 달친 격으로 그는 퇴행성 망막신경증을 앓고 있던 것이 가속화 되고 있었고 나중에 그는 결국 실명을 하게 되었다.



윤임상 교수  
(월미선대학교대학원)

이로 인한 고통은 더해만 갔다. 그러던 어느 주일 그가 다니는 버지니아 주에 있는 윌리엄스버그 신약성경교회(Williamsburg New Testament Church in Virginia)의 목사님께서 고후8:9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는 것을 듣는 가운데 스미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부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희생을 하고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셨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아니, 그것보다 더한 것은 나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나의 의를 드러내는 우를 범할 때가 많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어지지 않아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 때는 감사의 말이 목구멍에 막혀 다시 가슴에 아픔으로 멍들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이 말씀을 통한 깊은 깨달음을 갖고 그는 곧바로 가사와 곡을 쓰게 되었고 교회에서 부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찬양 “Give thanks with great full heart”의 시작이 된 것이다. 이 때 교회를 방문했던 한 미군 장교가 이 노래를 유럽으로 가져가게 되었고 그는 아내와 함께 독일에 있는 교회에서 회중들에게 노래하며 이 곡을 알리게 되었다. 이것이 점차 유럽 전역에 있는 교회에 퍼지면서 감사 찬송의 표준이 된 것이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18절에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범사(모든 조건)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다.

1986년, 이 곡이 인테그리티(Integrity Music) 경영진들에 의해 눈길을 끌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호산나음악(Hosanna Music)이 이 노래를 포함해서 발표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는 작자를 몰랐기 때문에 작자미상으로 올리게 되었다. 1986년 말 이 노래는 당시 찬양과 예배 노래(Parise and Worship Song)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던 미국의 싱어송 라이터 돈 모엔(Don Moen, 1950-)에게 넘겨졌고 그가 자신의 Give Thanks 앨범에 수록한 것이다. 이후 각국의 노력 끝에 인테그리티의 경영진들에 의해 작자를 알게 되었고 결국 헨리 스미스에게 연락이 왔다. 그리고 헨리는 이 인테그리티와 함께 노래 배포를 위한 작가, 출판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 유명한 역설의 감사 찬양 Give thanks with great full heart이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퍼지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도전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고백이다. 하지만 우리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감사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감사가 건강과 부를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주시는 것에 국한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감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고, 그의 섭리를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그의 보호를 간구하며 십자가 능력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감사가 용솨음 쳐야 한다.

이 찬양의 중심이 된 고린도후서 8장은 전반부(1-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게도냐교회에서 보내온 헌금을 언급하며 나는 메시지였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하늘의 큰 영광 가운데 부요함을 가지실 우리 주께서 그 영광을 모두 버리고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역설의 진리를 기억하며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성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나의 원함대로 되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는 감사를 Making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결정체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복음의 감격으로 인한 감사가 중심이 되어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감사의 계절에 자신을 위해 소비를 하려는 것보다 남을 위해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모든 조건들이 풍성하게 채워질 때는 이 모든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원내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 NJ: 리지우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 제7회 독후감 공모 심사평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조명환 목사)가 주최한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에서 최종심에 오른 7편 중 4편이 선정되었다. 지난 해 보다 공모한 수가 적었지만 나름대로 응모한 독후감 내용이 탄탄해서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책을 읽지 않는 세대반영이라는 결과에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사실이다.

아쉬운 것은 이수련(집사, 장석교회, 서울)은 '돌파하는 믿음(밤 소르기)'을 읽고 응모했는데 독후감 공모 대상 규정에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에 걸려 수상작품에서 밀렸다.

### 우수상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피터 스카지모)'을 읽은 장소영(사모, 웰터락처치, NY)은 책 안에서 소름이 끼쳐 나와 그 정서로 삶의 영역으로 뿌리내리는 역할은 높이 평가되지만 책 전체의 흐름을 놓친 것이 다소 아쉬웠다. 하지만 글을 전개하는 탄력성은 칭찬할 만 하다. 우수상으로 밀다.

허양희는 '간절한 매달림(토미테니)'으로 응모하였는데 코비드-19 시대의 환경과 맞물려 '간절한 매달림'을 통해 삶을 유추해석하고 있다. 글의 전개 방식, 이룰테면 독후감을 쓰게 된 동기, 책 내용 언급, 적용, 저자의 정서와 공감, 결과를 이루고 있다. 풍성한 글의 내용을 꼼꼼히 엮는 솜씨가 약한 것이 흠으로 남는다.

### 장려상

홍수연이 읽은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기독교(제라드 윌슨)'는 논리적인 글이다.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만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있기 때문이다. 홍수연은 책의 내용을 비교적 잘 정리하고 있지만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독후감에서 가장 중요한 연관성 문제를 다루지 않은 흠이다.

'간절한 매달림(토미테니)'을 읽은 사론 정(가디너)은 독후감 형식에 충실히 글을 전개하고 있다. 스스로 삶을 진단하고 책을 통해 부족한 점을 찾아 회복하거나 배우고 있다. 문제는 글의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며 글을 읽은 1인칭 주어가 흔들리는 것이 눈에 띈다.



백승철 시인

(목사, 문학평론가, 에피포드예술과문학 대표)

### 덧붙임

수상작품에서 밀려난 오지택(성도 산호세운복음교회)이 읽은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기독교(제라드 윌슨)'는 도입부가 신선하다. 하지만 책을 단순 요점 정리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오영의(장로, 산호세운복음교회)는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기독교'를 통해 기독교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논제가 빈약해서 전개방식이 흔들리고 있다. 그 책이 나에게 어떤 변화와 영향력이 되었는지, 사실을 숨기고 있다. 당선작에 들지 못한 이유지만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독후감의 사전적 의미는 "책을 읽고 난 뒤의 느낌 또는 그 감상을 적은 글"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책을 읽은 독자는 그 책의 내용 요약과 명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자신의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읽은 책의 감상을 1인칭으로 기록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설교 혹은 훈계하는 식의 이야기 전개는 독후감이 아니다. 독후감은 간증문이 아니며 단순 요약, 서평, 비평, 평론도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글의 전개가 논리적이야 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글이 되지 않아야 한다. 독후감 공모 시 제시된 규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룰테면 글자 크기, 분량, 간격 등 제시된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제7회 독후감공모를 최종 정리하면서 비록 지난해와 비교해서 많은 양의 응모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양질의 작품을 만나게 된 것은 큰 선반이었다. 그래서 다음 해를 다시 기대하는 꿈이 깊어진다. 이번엔 응모한 모든 분들과 당선한 분들께 가슴으로 드리는 축하이다.



##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19)



제9절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나우웬의 사상을 보다 온전히 뉴저지밀알선교단에서 실현하는 방안들

하나님나라 복음선교는 영과 혼과 육을 다 아우르는 선교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영, 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영혼구원만 가지고는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나라 복음에 부족하다. 그 영혼구원은 혼과 육의 차원까지 발전해야 한다. 곧 복지, 사회, 나라, 환경 문제까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선교도 이런 통전적 선교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선교가 아니면 장애인들은 행복할 수 없다.

육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행하고 영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니 장애인 선교야말로 통전적 선교를 증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된다. 이러한 통전적 선교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공동체는 인간의 영의 문제, 혼의 문제(지, 정, 의), 육의 문제까지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 1. 장 바니에와 헨리 나우웬이 함께한 장애인 공동체 모델

장 바니에는 가장 성공적인 장애인 공동체를 시작하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사람 중의 하나이고 헨리 나우웬도 장 바니에의 영향을 받아 토론토에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냈다. 밀알장애인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모델이 될 만하여 그 공동체를 알아보기로 하자.

1964년 장 바니에는 파리 근교 트로즐리 브뢰이에 있는 작은 집에 라르슈(방주)라는 이름을 붙이고, 정신지체 장애인인 필립과 라파엘 두 사람과 함께 정착했다. 그 때 장은 29년 후에 그 집이 28개 나라에 103개 공동체로 확산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곧 뒤따라오게 될 새로운 길을 자신이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더구나 그가 고통의 벽에 만들어 놓은 이 작은 문이 수많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문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프랑스에 머물고 있던 1963년의 어느 날 그는 토마 필립 신부를 방문했다. 그 신부는 장이 1950년에 해군을 사직했을 때 그를 보살펴주고 인도해 준 사람으로, 정신지체 장애인 서른 명이 함께 살아가는 집 '발 플뢰리'(꽃피는 계곡이라는



가을소풍

르쉬 공동체와 나우웬이 섬겼던 데이브레이크 장애인 공동체를 모델로 삼아 하나님나라 복음을 실현하는 공동체를 목표로 한다

뉴저지 밀알선교단에서는 2017년 8월 7일 뉴저지 Saddle Brook 타운 허가를 받아 밀알장애인 '꿈터'라는 이름의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다(30 Legregni St. Saddle Brook, NJ) 이 건물은 방이 25개로 18000SQ 규모이다. 그곳 건물을 구입하게 된 동기 중 하나는 교통이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의 모든 중심지로 80번, 17번, 4번, 46번, GSP way 5분 안에 위치에 있다.

장애인 공동체는 멀리 산속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으면 안된다.

### 교통 편한 곳에 자리한 밀알장애인공동체 '꿈터' 교회, 학교, 일터, 그룹홈, 병원, 농장 등 포함돼

뜻) 사제로 있었다. 그가 전에는 전혀 몰랐던 고통 받는 자들의 세계에 눈 뜨게 해준 사람은 바로 토마 신부였다.

그가 원하는 것은 두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었고, 그들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그들의 가족과 그들이 있을 수 있는 장소와 그들이 자랄 수 있는 땅을 마련해 주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계속 해 나갈 때에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은 그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그의 속에 있던 인간애가 조금씩 나타날 수 있게 해준 것은 그들이었으며, 우정과 일치 세계로 그를 점점 더 가까이 이끌어서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고 생명을 일깨워 준 것도 그들이었다.

### 2. 장애인과 함께 하는 공동체로서의 밀알동산 사역

밀알동산은 장 바니에의 라

그러면 사회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다. 가장 교통이 편한 곳에 있어 장애인들이나 부모 그리고 봉사자들이 많이 오고 갈 수 있어야 한다.

노인성 장애인들이나 21세 이상 성인 한국 장애인들은 갈 곳이 마땅하지 않다. 형편이 어려운 극빈 노인성 장애인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양로원에 들어간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한 달에 9000 불 정도를 보조한다. 그리고 부자 장애인들은 한 달에 몇 만불씩 하는 사립 양로원에 들어간다.

그런데 문제는 극빈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중산층 장애인들이 홀로 되었을 때가 문제이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립 양로원이 없고 있다하더라도 너무 비싸서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극빈자를 위한 양로원도 들어갈 수 없다. 이런 형편에서 밀알장애인 꿈터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국사람 문화에 맞는 너스름을 운영하면 영육간에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직접 연관이 있다.

밀알선교단은 16명의 장애인

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16명에게서 개인당 3,000불씩을 한달에 받아 48,000불 한달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왜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동체인가? 장애인 공동체는 하나님나라의 현존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는 외로움의 시대이다. 군중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세상과는 소통하지만 이웃과는 소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소통도 피상적인 정보의 소통이지 마음과 마음의 소통은 아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친구가 필요하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먼데 있는 친척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낫다는 말이 있다. 미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외로움을 느낀다. 자동차 문화이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래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들은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도보이동이 가능한 동네가 필요하다. 이 공동체는 일반 사회와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는 안된다. 가장 교통이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갈 수 있는 장소에 자리 잡

아야 한다. 그래야 많은 봉사자들이나 일반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다.

장애인도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장애인들을 통해 영적,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다. 그 공동체를 우리는 뉴저지 밀알동산이라고 부른다. 그 밀알동산에는 교회 뿐 아니라 학교, 일터, 그룹홈, 병원, 농장 등이 포함되었다.

예수께서 전한 하나님나라의 복음은 단순히 회교를 통한 영혼 구원의 복음만이 아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일어나는 복음이다. 헨리 나우웬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활동했던 것과 같은 공동체이다.

뉴저지밀알선교단은 장애인의 3가지 평등을 위해 노력한다. 첫째 예배의 자리에서 평등, 둘째 친구되는 자리에서 평등, 셋째 일하는 자리에서 평등이다. 이 3가지는 영육간에 구원을 주는 하나님나라의 복음의 실천 요소이기도 하다.

mju92@gmail.com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증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b>★ 1년 구독료</b>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 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_\_월\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주수감사절 축하 광고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용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917)968-1024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2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Tel. (917)862-0523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연합당회장: 지용수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213)380-9377  
Tel.(213)380-9079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중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장요셉

1864 Precinct Line Rd,  
Hurst, TX 76054

Tel. (817)427-1020  
Fax.(817)427-0110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4562 211th St,  
Bayside, NY 11361

(718) 229-0858  
www.nybaysidechurch.com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 김순관 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Cell.(213)745-9191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el.(323)-737-3009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el. (714)646-9259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310)325-402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253)536-6675  
www.facomacrc.com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3416 W. 1st St,  
LA., CA 90004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